

〈企劃論文〉

解放後 濟州研究概觀(Ⅱ)*

—歷史·考古分野—

金宗業** 權仁赫***
高昌錫**** 金容完*****

目 次

I. 序 言	IV. 高 麗
II. 通史類	V. 朝鮮·近代
III. 先史·古代	VI. 結 言

I. 序 言

本研究는 해방 이후 즉 1945년부터 1970년대말까지의 35년간에 걸쳐 國內外에서 간행, 발표된 歷史·考古分野에서의 제주도 관계 諸般論著를 概括, 整理하는 작업의 一環으로 이루어졌다.

최근에 와서 珍重한 學術資源을 간직하고 있는 제주도에 대해 學問的 관심과 열의가 점차 드높아가고 있으며 그 研究業績 또한 꽤 쌓여가고 있다.

그 研究가 體系的이고 組織的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간의 研究業績을 收合하고 分析, 概觀하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時急하고 緊要한 일이니 學術情

* 이 論文은 1982年度 文教部 學術研究助成費에 의해 연구되었음.

** 人文大學 史學科 教授

*** 人文大學 史學科 專任講師

**** 人文大學 史學科 專任講師

***** 人文大學 史學科 專任講師

報 파악은 학문의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耽羅文化研究所에서는 제주도에 관한 論著를 收合하고 이를 개관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 1次事業으로 語文學·民俗分野에 대한 研究概觀을 1981년도 完了한 바 있으며(「解放後 濟州研究概觀: 語文學·民俗分野」, 『耽羅文化』 創刊號, 1982), 그 계속사업으로 歷史·考古分野의 연구업적을 수합, 분석함으로써 제주도 관계 학자들에게 기초자료를 제공함은 물론, 제주도 연구의 촉진과 濟州研究史 定立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기간에 간행, 발표된 歷史·考古 관계 論著 전반에 대하여 빠짐 없이 概觀하기는 극히 어려운 일이다. 즉 해방 이후의 축적된 연구업적을 얼마만큼 포괄적으로 수집하고 정밀하게 분석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였다. 어쨌든 그 간의 연구결과와 방향을 정리하고 반성한다는 필요하고도 요긴한 작업이란 점에서 그 의의는 크다 할 것이다.

해방 이후 35년간의 歷史·考古 관계 論著數는 상당수에 달하였다. 아직 조사하지 못한 것도 다소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이 분야를 연구하는 전문학자 일반인을 포함하더라도 절대수가 한정되어 있고 또 이 방면의 연구 여건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한 상황에서, 더우기 구체적인 史料가 거의 없는 歷史·考古 분야에 있어서 이만큼의 論著數가 발표된 것은 양적으로 보아 적은 수는 아닌 것이다. 허나 해방 이후 이 방면의 연구가 질적으로 얼마만큼 알차게 발전하였느냐 하는 점에서는 論著의 수량만으로는 요량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것은 양적인 팽창이 질적인 면에서도 충분한 내실을 기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업적은 앞으로의 질적인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상당히 고무적인 연구 기반을 형성하는 밑거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기간에 활약한 연구자층의 연령별 분포도수를 볼 때 60~70대의 노장에서부터 20~30대의 신진에 이르기까지 연구자의 폭이 상당히 넓을 뿐만 아니라 발표된 掲載誌도 제주도 발간의 『제주도』, 제주도교육위원회 발간의 『교육제주』, 제주시 발간의 『제주시』, 북제주군 발간의 『북제주』, 남제주군 발간의 『남제주』와 『濟州新聞』, 『濟南新聞』 등의 官報·雜誌·日刊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

本稿에서는 序頭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45년 이후부터 1970년대말까지 국

내외에서 간행, 발표된 著書와 論文類를 중점적으로 수록하였다. 즉 수록대상으로는 제주도 관계의 歷史·考古 분야에 관한 研究著書, 編著, 譯書 및 學術誌, 論文集에 게재된 論文, 書評, 資料紹介, 論說 등을 조사하여 수록하였으며, 기타 月刊, 季刊雜誌, 校誌, 新聞 등의 定期刊行物에 게재된 내용도 조사하여 수록하였으나 대학생 이하의 글은 제외하였다.

論著의 分類는 우선 時代別로 通史類, 先史·古代, 高麗, 朝鮮·近代로 구분한 다음, 다시 單行本과 論文으로 나누었다. 단 두 시대에 걸친 논문은 後期の 시대로, 그 이상에 걸친 것은 通史類로 분류하였다. 각 시대의 下位 분류는 관련있는 것 끼리 통합하여 일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순으로 배열하였다. 研究動向을 概觀함에 있어서는 時代區分에 따라 主題別로 研究者에 따른 內容을 소개하고 그 비중이나 가치로 보아 중요 관심사가 될 만한 論著는 가끔 主要 內容에 대해서도 언급하기도 하였다.

논저의 수합은 金宗業, 權仁赫, 金容完이 담당하였고 집필은 高昌錫이 담당하였다.

끝으로 表記에 있어서는 ① 著者, 編者, 筆者, 譯者名 ② 單行本, 論文名(副題를 밝힘) ③ 掲載誌名과 卷 號數 ④ 發行機關 ⑤ 年代의 順으로 하였다.

(本文中에서 論著는 『 』, 論文은 「 」, 引用符號는 “ ”로 표시하였으며 論著者의 尊稱은 일체 省略하였다.)

II. 通 史 類

해방 이후 간행, 발표된 歷史·考古 분야에 관한 一般史로서 通史類로 분류되는 것이 꽤나 많았다. 그러나 아직 전문적인 가치를 가질만한 論著는 없으므로 앞으로 教科書的인 通史 定立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논저 전부에 대하여 일일이 紹介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주된 문제에 한해서만 內容을 記述하고자 한다.

먼저 제주도 관계의 資料를 모아놓은 것으로, 石宙明의 『濟州島文獻集』(서울신문사출판부, 1949)과 『濟州島資料集』(寶晉齋, 1971)은 『濟州島叢書』(全 6 卷)의 一環으로 간행된 것이고, 제주도교육위원회의 『耽羅文獻集』(신일인쇄사, 1976)은 제주에 관한 古文獻 6종을 선정하여 譯文과 原文을 併記 收錄한 것이다. 즉 作者未詳의 『瀛洲誌』는 金奉玉, 金淨의 『濟州風土錄』은 洪貞杓, 金尙憲의 『南槎錄』은 朴用厚, 李健의 『濟州風土記』는 金泰能, 李元鎮의 『耽羅志』는 金行玉, 金錫翼의 『耽羅紀年』은 金啓淵의 譯으로 編輯하였는데 稀貴한 古典들을 한 卷에 수록하였으므로 鄉土史 연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書誌學的 側面에서도 많은 서적이 간행되어 鄉土史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으니 ① 淡水契의 『增補耽羅誌』(프린트版, 1954), ② 梁弘植·吳太用의 『濟州鄉土記』(프린트版, 1958), ③ 金玉敏 外의 『濟州道誌』(濟州新聞社, 1962), ④ 제주도교육연구원의 『鄉土誌』(제주도교육위원회, 1972), ⑤ 韓致文의 『耽羅實錄』(韓進文化社, 1973), ⑥ 朴用厚의 『濟州島誌』(白映社, 1966) 등은 대표적인 것들로서 全島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①의 記載 항목은 본도의 지리, 연혁, 기상, 풍속, 區劃, 관공서, 교통, 통신, 교육, 종교, 산업, 언론기관, 사회단체, 산업기관, 금융기관, 인물, 觀風案 등으로 나누고, 그 중에서 지리는 다시 鎭城, 방위, 봉수, 樓亭, 창고, 학교, 祠廟, 佛寺, 果園, 牧養 등으로, 연혁은 奇聞傳說, 題詠, 舊例(田結, 營田稅, 加耕稅, 大同, 官需米, 衙祿米, 紙價米, 徭役, 雉鷄, 糶糶)로, 인물은 科宦, 進士, 文學, 才獻, 筆苑, 효자, 義士, 효부, 열녀, 절부, 의녀, 忠婢, 의술, 천문, 지리, 부호, 滑稽, 승려, 기타로 구분하였으며, 觀風案은 高麗朝로부터 朝鮮王朝末期까지 본도에 부임했던 牧民官들의 행적을 기록하였다. ②는 향토의 연혁, 지세, 기후, 명승고적, 풍속, 전설, 민요, 巫歌, 교육, 종교, 식물, 산업, 교통통신, 공공기관 등으로 나누어졌으며, ③은 제주도개요, 명승고적, 국보 및 천연기념물, 瀛洲十景, 史話, 전설, 제주도(耽羅)개국설화에 대한 고찰, 풍속, 민요, 고대인물, 효자, 열녀, 科宦, 先生案 등으로 大別하고 다시 小項目으로 각각 나누어 기록하고 있다. ④는 향토 교육자료로 엮은 것으로 본도의 자연편·전통편·산업편으로 구분하여, 자연편에는 자연환경, 인구와

취락, 교통, 교육기관을 열거하였고, 전통편에는 도민성, 略史, 人物, 민요, 문화재, 방언 등을 수록하였다. ⑤의 내용구성은 濟州島略史小考, 대표적인 전래의 전설, 土擾, 제주의 古風 및 방언, 민요, 역사적인 인물, 제주의 名物傳, 제주인으로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 8.15 직후의 사회상황으로 되어 있으며, ⑥은 총설과 각설로 대별하고 총설에서는 선사시대, 탐라시대, 조선시대, 受難시대, 광복 이후로 나누어 島史를 개관하였고 각설에서는 명칭, 탐라의 원주민, 선사시대의 유적, 位號 官員 및 附庸, 행정구역 연혁, 외부와의 관계 및 표류, 戰亂 및 騷擾, 왜구침범 및 방어, 문화 교육 및 取才, 종교, 산업, 목양, 果園 및 橘柚, 기근 및 진홍, 疫病, 貢獻, 稅政, 인구의 추이, 醫局 및 藥局, 각종 要員, 回祿의 變, 異見, 風水旱災 및 雪禍, 善政官 및 清白吏, 義士, 자선, 효행 및 烈行, 개척, 미덕, 聞望, 유배, 제주인의 육지移居와 해외활동, 公廨, 고적 및 사적, 풍속, 교통 통신, 항일독립운동, 사회단체, 民瘼, 토산물, 雜件, 高麗以後의 歷代守宰, 文武科 及 第者 등으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郡 단위나 邑面 또는 마을 단위의 향토지도 발간 되었다. 郡單位의 것으로는 高炳五·朴用厚의 『元大靜郡誌』(博文出版社, 1968), 朴用厚의 『南濟州郡誌』(상조사, 1978)가 있다. 前者는 지역적으로 또는 시대적으로 元大靜郡시대에 한하여 古文獻이나 碑文 등에서 先民들이 남긴 記錄, 作品 등을 발췌하여 原文을 게재하고 번역을 加한 것으로 총 74 항목과 부록으로 이루어졌으며, 後者는 『남제주』誌(33號, 1976년부터)에 「南濟州郡史」라 하여 게재되던 것을 同誌의 간행 중단으로 해서 별도로 出版한 것이다. 『元大靜郡誌』가 元大靜郡에 한하였음에 반하여, 本誌는 旌義, 大靜 兩郡 지역을 포괄하고 있다. 위의 兩誌는 전술한 氏의 『濟州島誌』와 大差가 없으므로 내용의 紹介는 省略한다. 그러나 氏의 三著書에는 부분적으로나마 引用文獻名, 原文 및 번역을 함께 실고 있는 점이 공통된 특징이라 할 것이며, 그만큼 이용자들에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文獻的으로 가치가 크다 할 것이다.

邑面이나 마을 단위의 것으로는 金廷彦의 『郭支誌』(1951), 金玉敏의 『翰林邑誌』(1963), 金孟玉 外의 『納邑鄉史』(1969), 金宗根의 『猯來誌』(1976), 金寶鉉의 『朝天誌』(1975) 등이 있으며, 또한 金榮教의 『旌義교을』(文化財管理局, 1973)은 한 지역을 대상으로 民族誌的 방법으로 집중

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간행된 것이다. 이외에도 在日 거주 僑民에 의해 著述된 『濟州島』(國書刊行會,東京,1975)와 耽羅星主遺事編纂委員會에서 간행한 『耽羅星主遺事』(高氏宗門會總本部,1979)가 있다. 前者는 風土編과 歷史編으로 大別하여, 風土編에서는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다루었고, 歷史編에서는 다시 14章으로 나누어 先史時代로부터 朝鮮王朝 말기까지 記述하고 있다. 즉 그 내용을 보면, ① 島의 古名稱, ② 先史時代의 文化, ③ 先住民의 구성 ④ 濟州島의 黎明, ⑤ 백제, 신라와의 관계, ⑥ 高麗朝下의 耽羅(여기서는 毅宗朝의 農民蜂起, 明宗朝의 반란, 神宗 5년의 반란, 草賊의 반란, 辛禑朝 2년의 반란, 三別抄亂과 제주도로 나누었다.), ⑦ 異民族(元)의 지배, ⑧ 李朝時代 제주도의 諸相(여기서는 初期의 諸改革, 바다에 떠있는 牢獄, 해적의 침입, 제주도의 城塞化, 流人의 섬, 미신을 타파한 목사, 관관, 梁濟海의 난, 哲宗 13년의 民亂, 高宗 27년의 民亂, 漁場侵害에 반대한 농민항거, 1896년(建陽)의 新制反對항거, 房星七의 난, 李在守의 난으로 나누었다.), ⑨ 琉球(沖繩)와의 관계 ⑩ 西洋諸國船의 표류와 침범, ⑪ 추자도의 풍물, ⑫ 방언, ⑬ 도민의 무속신앙, ⑭ 명승·고적·전설 등으로 이루어졌다. 後者는 9章으로 나누어 序說에는 자연환경과 耽羅史小考, 耽羅開國의 淵源에는 三姓神話, 탐라의 國號考, 耽羅王國時代에는 新羅·高句麗·百濟·唐 및 日本과의 관계, 耽羅星主時代에는 初期·中期·末期 및 都州官時代, 耽羅時代의 人物에는 歷代 星主·王子·都內의 事績, 耽羅의 名宦과 名賢, 牧民官의 治績, 流謫人士의 教化, 耽羅의 遺跡에는 三姓神話의 遺跡, 上古時代의 遺跡, 宮殿遺址와 星主廳, 州城內의 主要遺跡, 三姓祠의 史記에는 三姓祠의 沿革, 건립과 운영, 문화재 지정과 財團定款, 三姓殿 및 金冠祭服에 대한 고찰등으로 세분하였으며, 耽羅史에 대한 주요 古文獻에는 耽羅國王世紀, 瀛洲誌, 星主高氏家傳, 高麗史(拔萃), 朝鮮王朝實錄(拔萃), 肅宗과 正祖의 御製文, 耽羅에 관한 古詩文, 耽羅誌(濟州牧), 南槎錄, 濟州風土記, 觀察使關文, 耽羅巡歷圖解題, 南宦博物誌解題, 附錄에는 耽羅史年表, 耽羅史에 관한 寄稿(七星臺와 星主廳, 耽羅星主詩, 濟州州城考) 등이 수록되었다.

百科辭典의 著述로는 濟州年鑑社의 『濟州年鑑』(同社 1969~80)과 夫萬根의 『光復濟州30年』(文潮社,1975)이 있는 바 前者는 1969, 1976, 1977, 1980년에 걸쳐 네 차례나 간행되었으며, 後者는 해방 이후 변모하는 제주도

의 발자취를 정리한 것으로서 兩者는 앞으로 제주도의 지방 史料로서 가치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禹樂基에 의해서 大韓地誌 第一輯으로『濟州道』(韓國地理研究所, 1965)가 出刊되었고, 제주도의 『삼별초의 항몽투쟁사』(同, 1978)가 나왔는가 하면 Hendrik Hamel 著『蘭船濟州島難破記』및 그 부록인『朝鮮國記』가 李丙燾에 의해 『하멜漂流記』(一潮閣, 1954)로 譯註된 이래 최근 重刊이 되었는데, 여기에는 「하멜一行 및 벨트브레에 관한 朝鮮側記錄」과 「日本側史料」도 수록되었다.

教育에 관한 것으로는 제주도교육연구원의 『濟州教育通史』(제주도교육위원회, 1974), 『濟州教育史』(同上, 1979)가 있다. 『濟州教育通史』는 제주 教學分野를 歷史的 側面에서 體系化를 시도한 것으로서 古代教育, 中世教育, 近世教育, 最近世教育으로 구분하여 教育제도, 인물 등을 중심으로 編輯하였고 부록으로 도내 教育기관의 沿革일람표가 수록되었다. 『濟州教育史』는 李朝時代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教育의 흐름을 정리해 놓고 있으며 특히 부록으로 「濟州道教育年誌史」(1392~1978)와 教育부분의 「主要研究論文目錄」이 수록되어 있어서 이 방면 연구에 크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宗敎에 관한 것으로는 康文昊·文泰善의 『濟州宣敎 70年史』(大韓 예수敎長老會濟州老會, 1977)가 있으며 내용의 구성은 濟州宣敎 및 老會史, 支敎會編으로 大別하여 前者에서는 本島에 관한 몇 가지 참고, 福音의 전래, 濟州老會 組織前時代, 組織以後時代, 해방 이후시대 등 5장으로 나누었고 부록이 수록되어 있다.

기타 康大元의 『海女研究』(韓進文化社, 1970)가 있다. 潛嫂의 기원과 잠수의 작업, 잠수의 법적투쟁과 조합, 잠수의 새로운 위치 및 부록 등으로 나누어졌으며 1973년에 개정판이 나왔다.

일반적인 論考로서는 濟州島史를 定立해 보려는 試圖로서의 通史的인 敘述을 들 수 있다. 金泰能의 「耽羅鄉土史草稿」(濟州新聞, 1959. 12), 「濟州島略史」(『濟州年鑑』, 1969, 『제주도』 65~71, 1975~1977), 李膺鎬著 朴用厚譯의 『毛羅國書』(『濟州年鑑』, 1976), 濟州年鑑社의 「濟州道史」(同上 1977) 등은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그리고 「濟州의 鄉史」(濟南新聞, 1960, 1~1978, 8)가 連載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도내 각 마을의 設村由來와 歷史를

중심으로 집필한 것이다.

防禦 시설과 관련된 것으로는 朴用厚의 「歷史上에서 본 濟州島의 防衛」(『제주도』 2, 1962), 「濟州島의 城址 및 防衛施設」(同上 66, 1975), 金泰能의 「濟州島內 諸城의 由來」(同上 15, 1964)가 있다. 첫째 論考는 북방에서 오는 敵侵에 대한 방위와 남방에서 오는 敵侵에 대한 방위로 나누어 蒙古와 倭寇에 대한 防衛를 史的으로 개관하였고, 둘째 것은 築城의 필요성과 도내 各城의 由來 및 규모, 城址의 현황과 保護策을 論하였으며, 셋째는 도내 諸城의 築城 동기와 그 面貌를 記述하였다.

經濟에 관한 것으로는 제주도의 畜産을 先史時代, 高麗時代, 李朝時代, 日帝時代 등으로 나누어 史的으로 고찰하고, 결국 本島의 畜産은 高麗 李朝를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 興成기에는 본도 축산이 부흥되었으나 반대로 國政이 稅政일 때에는 본도 축산도 쇠퇴하였다고 記述한 金瑞燕의 「제주도 畜産의 史考」(『제주도』 63, 1974), 金奉玉의 「제주의 馬政」(『교육제주』 28, 1975)에서는 제주에서의 목축의 기원을 史的으로 규명하고 李朝시대의 馬政體系와 職責, 牧子의 苦痛과 제주민의 부담을 열거하고 있다. 특히 馬政上的 문제점으로 優良種馬의 확보문제, 貢馬 수송문제, 경제성 문제 등을 史的資料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며, 南都泳의 「韓國牧場制度考」(『東國史學』 11, 1969)에서도 제주도의 馬政에 대하여 간간히 言及하고 있다. 이외에도 洪貞杓의 「馬政」(『제주도』 1, 1962), 농촌진흥청 시험장의 「古書에 의한 濟州柑橘의 史的 考察」(『수원』 47, 1972)이 있다.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金泰能의 「耽羅의 漢文文化」(濟州新聞, 1972. 3), 康錫奎의 「濟州의 鄉土教育의 史的 考察: 朝鮮朝時代 이전의 鄉土教育」(『교육제주』 37, 1978)이 있다. 前者는 漢文文化가 제주도에 언제 어떠한 경로로 전래되었는가를 대외관계를 중심으로 살펴 본 것이고, 後者는 古代로부터 高麗時代까지를 다루었다.

Ⅲ. 先史·古代

제주도 先史文化的 探究는 1960 ~ 1970 년대에 들어와서 舊石器·新石器시대의 유물·유적이 발굴, 보고되면서 더욱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제주도 先史文化的 율곽도 점차 밝혀지고 있다.

먼저 舊石器時代に 관한 論考를 들면 ① 鄭永和의 「제주도의 舊石器時代 穴居遺蹟趾」(『제주도』 60, 1973), ② 「濟州島の 考古學的 調査: 新發見 遺物을 中心으로」(『文化人類學』 9, 1977), ③ 夫宗休의 「韓國 新·舊石器時代の 穴居遺蹟에 對하여: 濟州島 빌레못굴·한들굴」(『교육제주』 24, 1973), ④ 金元龍의 「濟州島の 先史文化和 住民」(『耽羅』 10, 1976) 등이 있다. ①의 論考에 의하면 빌레못동굴의 발굴 결과, 황곰의 化石骨, 馴鹿의 이빨, 사슴 모양을 線刻한 石片, 石器片, 骨角器, 木炭 등이 발견되었으니 이에 따라 빌레못동굴은 7 ~ 8 만년전에 사람이 살았던 中期舊石器時代 穴居遺蹟으로 밝혀졌다는 것이다. 즉 이 유적지를 중기구석기시대의 것으로 보는 이유는 동굴 바닥의 용암사이에서 발견된 骨角器와 石器片이 중기구석기시대 문화인 무스테리안期の 전형적인 양식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황곰뼈, 순록이빨 등의 발견은 韓半島와 제주도가 옛날에는 연결되어 있다가 지금으로부터 1만년전 洪積世末에 녹은 氷河로 인하여 海水面이 상승되어 섬으로 떨어져 나갔다고 하는 주목할 만한 견해를 발표했다. ②는 1973년 빌레못동굴의 舊石器遺蹟·遺物 확인 이후 1975년부터 1977년까지 3년동안 제주도의 考古學的 조사의 일환으로 제주도 전체를 답사하고 발표한 논고로서 이에 의하면 직접 유물을 찾아 조사된 지역은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두개의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유적은 북제주군에 위치하고 있다. 이것은 일찌기 제주도가 大陸 또는 韓半島와 문화적으로 접촉할 때 나타나는 지리적 위치를 암시해 주는 좋은 자료다. 즉 지금까지 발견되는 유물·유적들이 나타내 주는 문화적 특징은 제주도의 고인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靑銅器내지 初期鐵器文化的 요소를 보여주고 있는 사실이며, 이러한 문화는 韓半島로부터 크

계 영향을 받은 흔적이 出土 유물을 통해 잘 반영된다고 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서귀포 天池淵 遺蹟을 발굴하여 後期舊石器時代로 추정된 것이다. 서귀포 천지연 유적은 바로 천지연 폭포가 있는 곳인데 폭포 부근의 남쪽으로 향한 斷崖面 밑들이 일종의 Rock Shelter를 이루고 있으며 여기에서 舊石器時代에 해당하는 打製石器의 박편과 石刀 등이 채집되었고 특히 뚜렷한 Scraper와 Point의 出土라든가 정교한 石刀 제작술로 보아 後期舊石器時代 유적이 틀림없다는 보고였다. ③은 빌레못동굴의 발굴결과를 言及한 외에 翰林 邑 今陵里 속칭 「한들굴」에서 新石器時代의 것으로 추정되는 無文土器 및 磨製石矢·石礮 등과 사슴·돼지 등의 동물뼈 등을 발굴하고 古代人의 주거지로 추정하였다. ④에서는 “제주도의 구석기시대 주민들은 四面이 海水로 덮이기 전에 어디로 모두 이동해간 모양이며, 1967년 吾羅里에서 櫛文土器가 채집되었으나 破片이어서 확신을 주는 증거물은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제주도에 本土 新石器文化의 입김이 씌워졌었던 것을 示唆하는 중요한 유물이다. 신석기시대를 지나 無文土器를 사용하던 本土의 靑銅器時代에 해당되는 시기에는 제주도 주민의 수가 급증하였으며, 그것은 고인들의 경우나 無文土器, 石斧 등이 채집되고 있는 것으로도 입증되는 것이다. 그러면 제주도 無文土器인들이 꼭 靑銅器를 쓰고 있었는가 하는 것은 考古學的으로 아직 증명되어 있지 않으나 靑銅器後期 (B.C. 300~100년경)의 末期에서 初期鐵器時代 (B.C. 100~A.D. 200년경)에 걸쳐서는 靑銅器뿐 아니라 鐵器까지 사용하고 있었으리라는 것은 1929년 제주시 건입동 山地港突出工事中 熔岩下에서 발견된 靑銅一括遺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이 유물은 무덤의 副葬品이었다고 생각된다. 그것은 또한 內陸이 아니라 海邊突出部나 바다를 향한 위치에 營墓하던 習慣이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것이며 海路를 이용해서 이주 또는 진출하던 주민들과 무슨 聯關을 가진 정신자세인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 山地港口 무덤의 주인공은 西紀 1~2세기경에 북제주 해변 지대에 살고 있던, 당시로서는 유력한 인물이었을 것이며, 中國 화폐의 전 종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州와 本土 文化地들과의 왕래의 밀도를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紀元開始後의 제주도인 중에 일부 南方系 주민이 있었을 것은 당연히 생각되나 제주도민의 거의 전부는 역시 本土로부터의 이주민이었음은

考古學의 자료가 증명하는 바와 같다. 즉 고인들이나 無文土器가 모두 本土文化의 연장이고 특히 그 유적들이 제주도 北岸에 전개되고 있는 것은 제주도의 古代文化를 고찰하고 파악하는데 큰 示唆을 던져주고 있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文基善의 「濟州道 無文土器文化研究」 (『濟州大學論文集』 5, 1973)와 宋錫範의 「곽지 패총에 대한 소고: 곽지패총을 발견하고」 (『교육제주』 23, 1973)가 있다. 前者는 제주도 原始社會를 배경으로 한 先史文化를 고찰하여 본도 특유한 전통문화의 기원을 파악하고 그 骨格만이라도 일차 체계를 세우며, 先史時代의 유물을 수합, 정리하고 學的인 기초를 마련하는데 뜻을 두고서 吾羅里居住址, 郭支貝塚, 北村 속칭 “고두기언덕” 수혈주거지 등에서 出土된 無文土器片, 環石, 石皿, 石棒, 櫛文土器의 다양한 破片 등을 소개하면서 단편적으로나마 제주도 考古美術學의 고증을 시도해봄으로써 그 문화가 지니는 성격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後者는 1973년 6월 來韓한 日本 慶應大學 江阪輝彌와 宋錫範 등 諸氏에 의해 북제주군 애월읍 곽지리에서 패총이 발견된 경위를 기술한 것이다. 즉 이 곽지패총은 제주도에서 발견된 최초의 패총이며 無文土器를 비롯하여 石錘, 石鏃, 石斧, 그리고 사슴뿔뿔, 물새 등의 뼈가 출토되었다. 1970년대말에는 이 郭支貝塚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 조사가 濟州大學 民俗博物館 主管下에 이루어졌으며, 그에 대한 보고서가 근간에 나온다는 소식이다.

다음 본도의 고인들에 대한 조사, 보고로서 金哲竣의 「濟州島支石墓調查報告書」(『서울大學校論文集』 9, 1959)가 있다. 이에 의하면 “본도의 고인들은 本土樣式과는 다른 구조상의 특색을 발견할 수 있으며 北九州의 고인들과 유사한 형태를 하고 있다. 그 형태는 크게 보아 初期型이 本土의 橫穴式 石室古墳의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 初期型에 있어서 고인들은 용암으로 된 蓋石이 거북잔등 모양으로 불룩하게 된 것이 北九州의 龜石이라 불리우는 고인들의 蓋石을 연상케 하는 것인데, 그 前面入口는 들러있으나 後面에는 蓋石이 땅에 닿아 있으며, 이와같은 형태가 규모가 커질 때에는 그 蓋石 모양에 따라서 한쪽 支石은 높고 한쪽 支石은 낮아서 마치 南北方型 절충식이 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한편 이러한 南北方型 절충식의 유래를 바꿔 말하면 원래 제주도의 남방식 고인들이 本土로부터 들어온 또하나의 북방식 고인

돌과 병행하던가 그 영향을 받았을 것을 추측할 수도 있다. 이와같은 남북방향 절충식이 나오는 시기와 때를 같이하여 전형적인 남방식으로의 形式의 완성을 보이는 것도 있다. 그 다음으로 支石으로 墓室 全周圍를 둘러 支石이라기보다는 古墳壁石과 같이 되어버린 것도 있다. 고인돌의 구조가 그 蓋石에 좌우되던 단계를 넘어, 다시 말하면 개석 모양에 따라 支石의 수나 그 大小 및 그 위치가 결정되던 단계를 넘어서서 개석에 아귀를 지어 支石을 맞추던가 支石間의 空隙을 막기 위해 支石外側에 다시 外護石을 붙이고 副葬品臺까지 생긴 것으로 고인돌에서 古墳으로 넘어가는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고인돌 양식에서 古분양식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것이다. 그리고 고인돌에서 甕棺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형태상으로는 北九州의 고인돌과 제주도의 고인돌 사이에 연결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지적해 둔다. 원래 北九州 고인돌을 한국 본토에 있는 고인돌과 비교할 때 너무나 특이하여 本土의 남방식, 북방식 형태와는 거리가 먼 것이 많으나 한국 본토와 北九州 고인돌 사이에 제주 고인돌을 놓고 보면 北九州 고인돌의 형태가 유래한 연유를 알 수 있을 것이다. 한국 본토의 고인돌이 北九州로 건너가서 그와 같이 변한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일단의 양식상 변천을 보고 난 뒤에 그것이 北九州로 건너간 것이라고 생각된다. 제주도 삼성설화에 倭王女 3인이 와서 왕비가 됨을 말하는 것은 이와 같은 연결에서 오는 것 같고 그 삼성설화는 이 고인돌 營造者들의 설화였다고 생각된다" 하였다.

이후 1960년부터는 이 방면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에 의하여 도내 全域에서 고인돌의 발굴, 조사가 행하여 졌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 간에 발표된 예를 보면 宋錫範의 「濟州道の 고인돌 小考」(『제주도』 13, 1964), 「濟州島의 돌멘 溯考」(『제주도민속』 1, 1964), 「제주도 Dolmen, A地區의 支石墓」(『研修』 55, 1966) 등이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先史時代의 유물·유적이 발굴됨에 따라 이들을 제주도의 先住民과 연결시켜 보려는 試圖가 이상의 論考들에서 엿볼 수가 있으며, 이외에도 金泰能의 「州胡人에 대한 考察」(『濟州新聞』, 1964, 8.15), 梁弘植의 「濟州人の 血統에 대한 小考」(『제주도』 3, 1962), 夫宗休의 「濟州島의 先住民에 대한 考察」(『濟州島民俗』 2, 1964), 金貞培의 『韓國民族文化의

起源』(學術研究叢書 2, 1973), 洪淳晩의 「濟州原住民은 어디서 왔나」(濟州新聞 1975. 3. 11) 등도 제주도의 先住民에 대해 言及한 論考들이다.

古代로 넘어와서는 金宗業의 「耽羅國의 紀年에 대한 考察」(『濟州大學敎養學部論文集』 3, 1974), 「耽羅의 上古史論攷」(『濟州大學論文集』 10, 1978), 金奉玉의 「耽羅古代史에 대한 小考」(『제주도』 63, 1974)가 발표되었다. 前二者는 제주도의 地理적 환경과 先史時代의 遺物·遺跡을 개관하면서 본도 원주민의 구성, 제주도의 개벽과 삼성설화, 古代의 諸名稱, 耽羅國의 成立 및 對外關係 등을 論하였다. 특히 耽羅國의 紀年을 耽羅의 支配계급이 新羅에 入朝한 文武王 2년으로 잡고 있다. 後者는 耽羅 古代史에 대한 문제점을 규명하고 古代史 연구에 대한 課題를 제시함과 동시에 결론으로 연구 推進體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끝으로 耽羅 古代文化의 단계를 中國 日本의 발달 단계와 비교표를 시도하였다. 이 외에 石宙明의 「耽羅古史」(『月刊國學』 3, 1947)도 있다.

經濟에 관한 것으로는 南都泳의 「三國時代의 馬政」(『東國史學』 7, 1963), 「韓國牧畜發達上으로 본 三國時代의 馬政」(『京畿工專論文集』, 1968)에서 제주도의 馬政에 대해 간간이 言及이 되고 있다.

文化面에서는 金泰能의 「耽羅國의 獨自의 文化와 唐과의 關係」(『제주시』 6, 1968)가 있다. 屯羅島人이 蘇州에 漂着한 사실과 屯羅의 呼稱 및 獨自의 人 文字와 禮法, 屯羅와 唐과의 關係에 대해 『事文類聚』의 地道部風漂海船條를 중심으로 考察하였다.

IV. 高麗

이 시대의 연구에서, 특히 多數의 研究者의 관심이 모인 主題는 三別抄와 그 抗爭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이 시대의 연구에 필요한 資料가 빈약한 탓이기도 하려니와 또한 어느 한 분야에 집중한 특이한 점이기도 하다.

우선 一般적인 것으로는 人物에 관하여 叙述한 李承俊의 「이 교장의 人物

:高麗朝의 門下侍郎平章事 高兆基」(『교육제주』 34, 1977)가 있다. 濟州人에 대한 制約과 高兆基의 眞價, 그 生涯의 警見, 政治家로서의 高兆基, 뛰어난 詩人으로서의 高兆基로 나누어 살핀 다음 文化遺産의 承繼로 끝맺고 있다.

이 외에도 宋錫範의 「15 리 토성 쌓고 항쟁:김통정장군」(『제주도』 45, 1970), 문선희의 「김통정장군」(濟州新聞, 1972. 4. 11), 문인경의 「自主精神에 透徹한 武人 金通精」(『교육제주』 35, 1977), 김찬흠의 「蒙古勢力을 물리친 耽羅의 恩人 崔瑩」(『교육제주』 35, 1977) 등이 있으며, 後二者는 제주도에서 일어난 국난 극복의 人物을 文獻·記事 등에서 발췌하여 옮긴 것이다.

三別抄와 그 抗爭에 관한 것으로는 ① 金庠基의 「三別抄와 그의 亂에 對하여」(『東方文化交流史論攷』, 1947), ② 金泰能의 「耽羅와 三別抄」(濟州新聞, 1959. 5. 12) ③ 金仁濟의 「金通精의 耽羅島 入據始末」(『북제주』 62, 1969), ④ 洪淳晩의 「三別抄의 抗爭」(『제주도』 71, 1977)이 있다. ①은 제주도에서의 三別抄의 抗爭 과정을, 三別抄의 제주入據, 內外諸城의 구축 및 활동, 삼별초에 대한 蒙古側의 회유공작, 麗蒙聯合軍의 濟州攻陷으로 나누어 論述하였고, ②에서는 삼별초의 前哨活動, 三別抄將 金通精의 渡來, 聯合軍의 耽羅討伐戰, 三別抄亂後의 樣相 등으로 나누어 論하였으며, ③은 金通精의 入據와 활동, 몽고측의 회유공작, 麗蒙聯合軍의 濟州攻陷, 金通精 난리의 영향 등으로 되었다. 그리고 ④는 삼별초의 제주도에서의 항쟁을 濟州占據爭奪戰, 金通精장군의 進駐, 三別抄와 聯合軍의 決戰 및 濟州道에 미친 三別抄의 영향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이 외에도 李承俊의 「三別抄의 抗戰과 濟州島」(『교육제주』 31, 1976), 김혁수의 「삼별초의 대몽항쟁과 그 의의」(『菊香』 2, 1977), 月刊開發濟州社의 「삼별초」(『開發濟州』, 1977. 6), 金宗業의 「國難과 三別抄」(濟大新報, 1979. 5. 31), 全麟燦의 「三別抄의 對蒙抗爭에 대한 考察」(『東亞大教育大學院論文集』, 1979) 등이 있으며, 三別抄의 抗爭으로 인한 영향을 論한 것으로는 金泰能의 「三別抄亂이 濟州島에 미친 영향」(濟州新聞, 1959. 6. 13), 김인제의 「삼별초 제주입거가 제주민에 끼친 가치생활면의 영향」(『제주시』

16, 1971), 梁相翊의 「The Foreign Influence on the Traditional Culture of Cheju Island」(『濟州大學論文集』 5, 1973), 「濟州에 미친 蒙古의 영향」(濟州新聞, 1977.4.6) 등이 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元宗 11年(1270)에서 同王 14年(1273)까지의 약 4년에 걸친 삼별초의 항쟁은 麗蒙聯合軍에 의해 제주도가 陷落됨으로써 종말을 고했고, 이후 元에 의해서 耽羅總管府가 설치되면서 元의 直轄領으로 변모하였다. 이로부터 高麗末까지의 狀況을 다룬 論考로는 金泰能의 「耽羅와 元의 牧養時代」(『제주도』 18, 19, 1964, 1965), 「蒙古의 耽羅支配와 崔瑩將軍의 牧胡討伐」(濟州新聞, 1959. 7. 18)이 있다. 前者의 내용 구성으로는 ①前言, ②元의 耽羅支配와 牧馬場 설치, ③탐라의 반환과 支配의 反復, ④국내사정과 도내 民情(이상 18권), ⑤牧胡와 倭賊의 상호원조, ⑥達達牧子の 強暴과 金庾의 討伐, ⑦元明交替期の 제주의 말(馬)과 牧胡, ⑧明에 送馬 반대의 牧胡叛亂, ⑨崔瑩의 牧胡討伐, ⑩元牧子の 제주에 끼친 영향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 삼별초의 진압후로부터 高麗末까지의 島史를 개관하는데 一助가 될 것이다.

다음 文化와 관련된 것으로는 金泰能의 「元順帝의 避難宮殿址와 伯伯太子의 墓」(『제주도』 31, 1967), 梁重海의 「耽羅의 佛敎와 水精寺에 관한 研究」(『濟大學報』 16, 1975)가 있다. 前者는 高麗末에 元의 順帝가 漢族 朱元璋의 세력을 두려워하여 만일의 경우 耽羅에 피난하려고 元에서 木手를 제주에 보내어 그의 避難宮殿을 지은 일이 있었고, 또 元이 亡한 後에 明은 다시 雲南을 정벌하여 그곳을 항복받고 雲南 梁王의 伯伯太子를 耽羅에 流遷시켰는데, 現 서귀포시 하원동 북방의 法華寺址가 여러모로 보아 元 順帝의 避難宮殿址일 것이라고 추정했고 또 西歸浦市 도순동 북방의 속칭 王子墓가 伯伯太子의 墓일 것이라고 주장할 만한 몇 가지의 참고 자료를 제시하였다. 後者는 원시적 신앙 형태인 巫俗信仰이 강한 풍토에서 살아온 耽羅人이 처음 佛敎에 접촉하기는 高麗 德宗 9年(1034)에서 文宗 11年(1057)을 전후한 시기로 보았다. 그리고 耽羅에 佛敎가 傳來되기는 삼별초의 入據를 계기로 하여 高麗와 元(蒙古)의 두 경로를 통하여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고 추정하였다. 현재의 外都川邊에 있었던 水精寺는 제주도 最古 最大의 寺刹로, 高麗

忠烈王 26년(1300) 入島한 元人들에 의하여 세워졌던 巨刹이었으나 李朝에 내려와 崇儒抑佛政策에 의하여 孝宗 4년(1653) 이후 肅宗 28년(1702) 사이에 毀撤된 것이다. 그런데 이 水精寺가 지금까지는 外都川邊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을 뿐 그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었으나 1975년 8월 이후 3차의 답사 결과 아직도 땅속에 매몰된 채 原位置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礎石 3~4개를 비롯, 총 7개의 초석을 발견하고 이 초석들을 實測한 결과 水精寺에 대한 규모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耽羅의 불교와 문화 그리고 이에 끼친 元人の 영향 등을 탐구하는데 하나의 자료가 될 것이라 하였다. 여기에는 발굴 결과의 位置圖와 礎石의 규모 등을 圖表로 작성하여 수록하였다.

이 외에 李誠桓의 「蒙古族이 濟州佛敎에 끼친 영향」(濟州新聞, 1978. 5. 23)도 있다.

V. 朝鮮·近代

이 시대에 와서는 일반·정치·사회·경제·문화 등의 諸分野에서 비교적 다양하게 論考가 발표되었다.

一般類 중에서는 우선 人物에 관한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또 도내와 도외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다.

도내 人士로는 世宗代에 文科에 급제하여 僉知中樞院事, 戶曹參議, 同知中樞院事, 漢城府判尹 등을 역임하였고, 日本에 通信使로, 明에 聖節使로 다녀오기도 한 高得宗과 正祖 16年(1792)부터 제주도에 흉년이 거듭되어 飢死者가 속출할 때 巨額의 돈을 내놓아서 陸地 沿海지방으로부터 穀物을 사다가 飢民을 구휼한 金萬德에 대한 論考가 있다. 前者에 관한 것으로는 李承俊의 「이 고장의 人物: 世宗朝 漢城判尹 靈谷 高得宗」(『교육제주』 37, 1978)이 있는 바, 여기서는 靈谷의 生涯와 시대적 배경, 靈谷의 면모를 알게 하는 기록, 파란 많았던 그의 生涯, 그의 書藝와 文章, 愛鄉心, 遺墟 등으로 나누어 敘述하면서 특히 觀德亭의 增修, 敎育의 진흥 등에 공헌한 바가 크다 하였다. 또 金泰能의

「濟州의 牛馬賊小考」(『제주도』 14, 1964)에서는 경제면에서 본도에 공헌한 바를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한라산 주변을 축담하게 하여 公私牛馬를 이 속에 入牧시켜 농경지를 牛馬의 유린에서 보호하게 하였고, 또 世宗大王에게 제주도의 牛馬賊들을 西北지방으로 移居시켜 生業을 주어 生活토록 하면 濟州의 人口 密度가 完化되고, 食糧의 곤란도 덜게 되며, 또 牛馬賊도 없어지게 되어 牛馬 번식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건의하여 시행케 하였다. 이로 인해서 濟州島人이 처음으로 黃海道와 平安道로 移住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後者에 관한 것으로는 金泰能의 「金萬德의 飢民救濟功績」(『제주도』 16, 1964), 「金萬德의 生涯와 行績」(濟州新聞, 1971, 10. 21), 韓贊奭의 「愛農偉人列傳: 金萬德篇」(『농경월보』 2, 1964)이 있으며, 그 중 첫째 論考에서는 古代 제주여성의 특기와 社會活動, 金萬德의 生涯와 기민구제, 萬德에 대한 殊異之說과 精神의 稱頌, 金萬德을 추모하고 기념하자로 나누어 敘述하였다.

이 외에도 본도가 낳은 효자, 효부 중에서 『續修三綱錄』, 『耽羅文獻集』, 『朝鮮實輿勝覽』 등에서 조사하여 현지를 직접 답사하고 확인한 忠孝 인물에 관한 것으로 김찬흠의 「濟州島의 忠孝人物瞥見」, 「忠孝를 兼全한 遺腹子 李弼完」, 「都近川의 구술인 孝婦 金玉」, 高南俊의 「三旌閣의 家門을 이룬 朴繼昆」, 金東醒의 「어버이 供養에 一貫한 夫千謙」, 金亨翊의 「正道를 몸소 實踐한 洪達漢」, 文仁璟의 「이웃을 잘 돌본 模範人 玄遠祥」, 「媳父母를 잘 모신 孝婦 崔氏」, 咸元澤의 「獨身으로 一貫한 孝子 高允文」 등이 『교육제주』(『교육제주』 35, 1977)에 게재되었다.

다음으로 제주도에 牧民官으로 부임해 왔거나 流配되었던 人物들 중에서 본도의 발전에 크게 一翼을 담당했던 人物을 論한 것으로는 金泰能의 「古代 濟州의 學問과 文化發展에 寄與한 濟州의 謫居人들」(濟州新聞, 1964.1.17), 「濟州飢民과 同居한 牧使 盧錠」(濟州新聞, 1964.10.29), 「濟州土俗과 永川 李牧使의 治績」(『제주도』 30, 1967), 「秋史 金正喜의 大靜謫居와 그 영향」(『제주도』 37, 1968), 「牧使 金倣의 治績과 三泉書堂」(『제주도』 40, 1969), 「申命圭 二代의 大靜縣謫居」(『제주도』 42, 1969), 「盧氏夫人과 까치가 가귀와 安德溪谷의 任觀周詩」(『제주도』 52, 1971), 秦元日·金寶鉉·金

泰能의 「五賢의 行蹟: 金淨·宋麟壽·鄭蒞·金尙憲·宋時烈」(『제주도』 52, 1971), 泰元日의 「玄玄居士 朴泳孝」(『제주도』 46, 1970), 洪淳晩의 「濟州流謫一番地」(濟州新聞, 1973. 9. 23), 「濟州에 恨 맺힌 流刑人들」(『제주도』 76, 1979), 洪貞杓·金宗業·洪淳晩·金奉玉의 「李朝 濟州牧民官 16人」(『제주도』 65, 1975) 등이 있다.

한편 이들이 남긴 著述 중에서 번역된 것으로는 李健의 『濟州風土記』(金泰能역, 濟州新聞, 1964. 12. 13), 金尙憲의 『南槎錄』(朴用厚역, 『교육제주』 19, 20, 21, 1972), 金允植의 『續陰晴史』(金益洙역, 『제주도』 59, 61, 62, 1973, 1974), 金淨의 『濟州風土錄』(洪貞杓역, 『교육제주』 28, 1975)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鄭東愆의 『晝永編』에 記載된 異國人的 漂到 내용과, 濟州人의 安南漂流 내용도 번역되었다. 즉 前者는 高柄羽의 「南方黑人的 濟州漂到」(『黃義敦先生古稀紀念史學論叢』, 1960, 『東亞交涉史研究』, 一潮閣, 1970)에서, 後者는 崔常壽의 「濟州島民의 安南漂流」(『제주시』 창간호, 1966)에서 각각 번역되어 게재되었다. 또 현재 제주도가 보관하고 있는 「耽羅地圖并序」(『제주도』 58, 59, 1973)가 洪貞杓에 의해 번역되었고, 高應三에 의해 「判官 徐憐記念碑」(『제주도』 54, 1972), 「靈谷公의 興禮儀論」(『교육제주』 35, 1977), 김순희에 의해 「靈谷의 興學校論」(『교육제주』 25, 1973), 교육제주편집실에 의해 「高得宗의 弘化閣記」(『교육제주』 23, 1973), 「濟州飢餓民을 위한 祭文」(『교육제주』 30, 1975), 金榮洽에 의해 「李禴著 藏修堂記」(『교육제주』 26, 1974), 「判書井志感」(『교육제주』 38, 1977), 김한희에 의해 「冲庵의 都近川水精寺重修勸文」(『교육제주』 29, 1975), 金行玉에 의해 「宋時烈 謫廬遺墟碑」(『교육제주』 36, 1977)등도 번역되었다. 또한 張漢喆(朝鮮 英祖에 涯月에서 出生)의 『漂海錄』이 鄭炳昱에 의해 상세하게 解題(『人文科學』 6, 延世大學 1961)되었으며 1979년에는 單行本(張漢喆 著, 鄭炳昱 譯, 『漂海錄』, 汎友셋세이選 86)으로 번역되어 나왔다.

제주도는 지리적 위치로 해서 예로부터 본도 근해를 왕래하는 선박들이 폭풍 등으로 해서 본도에 漂着하는 일이 많았고, 본도인들 또한 中國 大陸이나 琉球 安南 日本 등지에 漂流되는 일이 많았다.

먼저 外國人이 본도에 漂到한 例로는 ①金泰能의 「和蘭船舶의 大靜縣漂着」(『제주도』 39, 1969), ②「정의현에 反淸漢商의 漂着과 그들에 대한 아국의 조치」(『남제주』 8, 1969), ③「和蘭國漂人 벨트브레의 行蹟」(『제주도』 46, 1970), ④「反淸漢人들의 濟州漂着」(濟州新聞, 1970, 11. 26), ⑤「庚戌년에 얽힌 濟州史話」(『제주도』 43, 1970), ⑥「海上事故로 본 淸國과 濟州」(濟州新聞, 1971. 1. 7), ⑦洪以燮의 「鄭東愈의 『晝永編』에 보인 異國語에 就하여」(『歷史學報』 4, 1953)가 있다. ①③의 論考는 仁祖 5年(1627)에 漂着한 和蘭人 벨트브레(Weltvree, Jan Janes, 朴淵)와 孝宗 4年(1653)에 漂着한 同國人 하멜(Hamel, Hendrik) 一行에 대하여 敘述한 것이고 ②④⑥은 孝宗과 顯宗年間に 反淸漢人 즉 明나라 遺民들의 商船이 풍랑에 파선되어 旌義縣에 漂着하자 我國에서는 그들을 淸나라로 押送한 사실을, ⑤는 주로 憲宗 6年(1840)에 英國 船舶 2척이 加波島 國畜牛馬場 劫掠 사건과 同王 11年에 英國測量船 「사마랑」號가 제주도에 무단히 접근하여 水深을 測量했던 사건, 隆熙 4年(1910)에 역시 英國軍艦이 大靜郡 沿海에 좌초했던 사실들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⑦은 純祖 元年(1801)에 제주 唐浦에 異國船이 來渡하여 5人을 내려놓고는 가버렸는데, 이 異國人들은 南方의 土人들이며, 당시 朝鮮朝廷은 이들의 처리에 있어서 例에 따라 淸廷으로 入送했으나, 淸은 마침 마카오를 둘러싼 英·佛·葡의 분규를 귀찮게 여겨 이 異國人들을 國籍不明의 이유로 朝鮮으로 도로 回送하였더니 朝鮮에서는 하는 수 없이 初到地인 濟州 唐浦에 安置시켰다는 것이다. 外國人의 漂到와 關聯된 論考는 이 외에도 金泰能의 「琉球와 濟州와의 關係」(『제주도』 33, 1968), 崔常壽의 「琉球王子의 濟州島漂着說」(『제주도』 37, 1968), 金良善의 「仁·孝兩朝蘭人의 漂到와 韓中日國의 外交關係: 耶蘇宗問題를 中心으로」(『향토서울』 30, 1967)가 있다.

한편 濟州人들이 諸外國에 漂流되었다가 돌아온 것을 다룬 論考로는 ①金泰能의 「李光彬의 長崎島漂流와 그 氣風」(『제주시』 2, 1966), ②「崔溥의 漂海錄」(濟州新聞, 1970. 3. 27), ③「金非衣일행의 琉球漂流와 見聞」(濟州新聞, 1970. 8. 27)이 있다. ①은 英祖때 李光彬이 長崎에 漂着하여 外國 무역항의 변화상을 견문하고 돌아온 사실을, ②는 成宗때 제주 敬差官 崔溥 일행

이 中國 浙江省에 漂流된 일이 있었는데, 그 일행중에는 제주인도 20여인이 同乘되어 있었다. 그들은 陸路로 北京을 경유, 귀국길에 中國의 諸般文物을 전문할 기회를 얻었으며, ③은 成宗 때에 金非衣 일행이 琉球 西南端의 한 섬에 漂流되었다가 여러섬을 경유하여 돌아온 사실 등을 기술하고 있다.

政治에 관한 것으로는 金泰能의 「太宗과 世宗時代의 濟州」(『제주도』 21, 1965)와 金宗業의 「李朝 世宗年間に 있어서의 濟州島」(『濟大學報』 16, 1975)가 있다. 前者는 海外絕島요 特殊地域인 濟州에 대하여 太宗과 世宗이 취한 施策과 건설을 記述하고 있다. 즉 太宗때에 濟州에 대한 施策으로는 첫째 屋主와 王子의 呼稱 폐지와 土官의 호칭 개정, 둘째 民戶의 貢賦와 收租法의 制定, 셋째 旌義와 大靜 兩縣의 新設과 邑城의 축조, 넷째 教授官의 別置와 釋奠祭, 漢拏山祭의 官行, 다섯째 농지개간과 감귤나무의 육지연해에의 移植, 여섯째 濟州馬의 出陸과 他地方에의 移牧 등이며 世宗때에는 중요한 營造物과 諸般 防衛施設의 具備, 公私積弊의 革除, 食糧難의 해결, 牛馬의 번식도모 등을 도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後者는 朝鮮初의 제주도의 사회상을 분석하고, 주로 교육, 사회행정, 형벌, 難民救恤, 民弊 등에 주안점을 두어 論述하였으며, 결국 世宗大王은 文治와 德으로써 제주도민을 교화시켜 本土人에 비하여 하등의 손색이 없을 정도로 生活의 안정과 문화발전을 가져오는 데 기여한 바 至大하였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金榮洽의 「世宗大王 當時의 濟州島」(『교육제주』 25, 1973)가 있는 바 여기서는 『世宗實錄地理志』卷4 全羅道篇中の 제주도에 관한 내용을 알기 쉽게 分類 풀이하여 15세기 당시의 형편을 考察하고 있으며, 金世革의 「朝鮮時代 濟州島守令任命政策」(『교육제주』 37, 1978)에서는 본도에 대한 朝鮮王朝의 政策全般에서, 특히 다른 지역과 다른 守令任命에 따른 여러가지 問題點과 守令의 사명 등을 살피고 있다.

軍事와 關聯이 있는 것으로는 倭寇의 侵入과 그에 대한 防禦 시설을 들 수 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倭寇는 이미 古代로부터 우리나라 연안을 노략질해왔고 심지어는 大陸에까지 진출하여 항상 문제가 야기되어 왔으니 제주도의 경우도 例外는 아니었다. 따라서 朝鮮時代에 들어와서 제주의 防禦 시설은 곧 그 대상이 倭寇들이었으므로 항상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와 關聯된 論考로서는 金泰能의 「川尾浦의 倭亂과 乙卯倭變」(『제주도』 36, 1968),

「三浦倭奴의 橫行과 牧使 張琳의 濟州防禦施設」(濟州新聞, 1972. 5.10) 이 있다.

첫째 論考는 明宗 7년(1552) 5월 倭人 70여명이 川尾浦에 上陸하여 살륙 약탈을 자행하였고 同王 10년(1555) 6월에는 倭賊船 40여척이 禾北浦 연안에 정박하고 倭賊 千여명이 上陸하여 濟州城을 포위했던 사건을 다룬 것으로 國史上 同年에 일어난 乙卯倭變의 일부라고 하였다. 둘째 것은 中宗初에 三浦에서 추방된 倭奴들이 제주에 침범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牧使 張琳을 파견하여 朝天館, 別館, 明月東海 및 西歸 등지에 築城하게 하고 또 候望台(煙臺)도 증설케 하였다는 것이다.

經濟에 관한 것으로는 南都泳의 「朝鮮時代 濟州島牧場: 韓國畜産研究의 一端」(『韓國史研究』 4, 1969)이 있다. 여기서는 제주도 목장의 유래를 개관하고 朝鮮時代 제주도 목장의 조직과 관리방식, 牧畜類의 사육방식 및 이를 중심으로 한 경제 諸關係에 대해서 考察하였다.

社會와 關聯된 것으로는 金泰能의 「濟州島民의 流亡과 出陸禁止」(『제주도』 27, 1966)가 있다. 여기서는 朝鮮成宗代로부터 仁祖初에 걸쳐 島外로 移住하는 者가 많았는데, 이들은 주로 慶尙道와 全羅道 沿海지방에 거주하였으며, 또 이들을 일컬어서 頭無岳이라 하였다. 한편 朝廷에서는 제주 방위상 또는 不得已한 일이라 하여 仁祖 7년 이래 제주민의 출육을 국법으로 금지하고 육지인과의 혼인관계도 금하였으며 특히 제주 婦女子의 出陸을 嚴禁하였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제주에서 일어났던 叛亂과 民擾에 관한 것으로는 金泰能의 「梁濟海亂과 濟州民의 自主企圖」(『제주도』 34, 1968), 「沈來復一黨의 謀逆事件」(『제주도』 54, 1972), 「哲宗時代의 濟州農民暴動」(濟州新聞 1972. 6.22), 金鎮鳳의 「哲宗朝의 濟州民亂에 대하여」(『史學研究』 21, 1969) 등을 들 수가 있다. 첫째 것은 純祖 13年 洪景來亂에 자극된 제주인 梁濟海 一黨이 “濟州는 濟州人이 自主하여야 잘 살 수 있다”는 信念下에 叛亂을 음모했던 것이고, 둘째 것은 英祖 39年 少論派의 李麟佐亂에 연좌되어 제주에 流竄된 沈來復一黨이 비밀히 결사하여 京城으로 쳐들어가서 英祖를 폐위하고 제주에 安置中인 宗臣 李燾을 王位에 추대하려는 음모를 하다가 사전에 발

각된 사실을 기술한 것이다. 세째와 네째는 哲宗朝의 제주 民亂을 다룬 것으로 前者는 暴動의 原因과 狀況 및 亂의 結果로 나누어 記述하였고, 後者는 이 民亂을 農漁民의 弊瘼矯拔運動이라 하였다. 그리고 9·10·11월에 걸친 3차의 봉기에서 수만의 농어민이 동원되었고, 家財毀燒, 人命殺傷은 물론 한때는 牧使를 축출함으로써 도내의 行政機能을 完全히 마비케 한 격렬한 운동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제주 民亂은 壬戌民亂의 始動 역할을 한 晉州民亂과 함께 이 해에 일어난 농민운동 중에서 쌍벽을 이루는 지방운동이었으며 본도 특유의 경제적 수탈과 內陸지방 民亂의 영향과 도민의 끈질긴 氣質 등이 합쳐져서 야기된 결과로 보았다.

이 외에도 光武 5년(1901)에 제주도민과 天主教徒 사이에 일어난 辛丑教難이 있다. 이와 關聯된 論考로는 우선 天主教의 傳來에 관한 것으로 柳洪烈의 「濟州道の 天主教傳來」(濟州新聞, 1972. 5.20)가 있으며, 이에 의하면 제주도에 천주교가 들어온 것은 光武 3년(1899)경이었다. 즉 이 때에 金永元 신부와 프랑스 신부 「페이네」(Peynet, 裴嘉祿)가 제주도에 파견됨으로써 教勢가 미치게 된 것이다. 이듬해 페이네신부에 대신하여 「라구우스」(Laccuts, 具瑪瑟)신부가 파견되었으며 光武 5년에는 「무세」(Mousset 文濟萬)신부가 건너왔다. 이때는 이미 旌義郡 西烘里 등지에 성당이 세워졌으며 영세를 받은 信者만도 百여명에 달하였다고 하였다.

이후 제주도민과 教徒사이에 일어난 충돌, 이른바 辛丑教難을 論한 것으로는 ①柳洪烈의 「濟州島에 있어서의 天主教迫害：1901년의 教難」(『李丙燾博士 華甲紀念論叢』, 1956), ②金泰能의 「聖教亂：濟州에서의 天主教布教와 李在守亂」(濟州新聞, 1962. 10.5) ③「聖教亂事件과 三狀頭의 供述內容」(濟州新聞, 1964. 11.26), ④朴廣成의 「1901年 濟州島民亂의 原因에 대하여：辛丑天主教迫害事件」(『仁川教大論文集』 2, 1967), ⑤金仁濟의 「濟州의 辛丑年 天主教教難」(『제주도』 30, 1967), ⑥「同：외교면에서의 고찰」(同上 39, 1969), ⑦吳成贊의 「李在守의 亂」(『제주시』 4.5, 1967) 등이 있다.

①은 辛丑年의 제주도 教難의 원인으로, 수년래 거듭된 목사·郡守 등 官員의 착취와 外道出身 捧稅官의 濫稅에 대한 本島民의 排他心, 捧稅官과 私設 商務社의 대립·갈등과 天主教의 성행과 천주교인의 미신행위 타파 및 巫女들의

반감, 貪官汚吏에 대한 天主教인의 규탄과 관료의 천주교 질시, 日本 상인과 商務社員의 결탁 등을 들 수 있으며, 直接 教難의 導火線的 동기를 이룬 것은 官權을 배경으로 한 일부 도민 및 商務社員과 천주교인과의 분쟁, 捧稅官의 濫稅와 이에 관계된 教人에 原因한 바가 있다 하였으며 ②에서는 개관, 한국에 천주교의 개요와 제주에 포교경위, 李在守亂의 爆發(원인과 직접 동기, 京來捧稅官의 濫權, 教徒의 橫暴와 大靜郡에 商務社조직, 民擾의 직접원인과 大靜郡民의 쫓기, 李在守영도하에 大靜郡民再挙와 三邑民쫓기), 민중의 무장義舉와 戰況(전투 개시와 州城포위, 州城內의 주민과 教徒軍과의 反目, 州城婦女들이 教徒軍에 반대 쫓기, 民軍의 無血入城과 교도살육, 仏國兵艦의 제주항발과 정부에서 진압군 파견), 鎭衛隊兵丁增派와 亂의 진압, 民擾主動者에 대한 審理處刑과 난 후 처리(三狀頭를 서울 押送, 三狀頭에 대한 審理와 仏公使의 배상금 요구, 仏公使 요구와 배상금청산), 李在守亂의 의의와 三狀頭에 대한 추모(李在守亂의 의의, 三狀頭에 대한 도민의 추모) 등으로 나누어 論述하였으며 附錄으로 民擾에 대한 考證資料가 수록되었다. ③은 서울로 押送된 三狀頭(吳大鉉, 李在守, 姜遇伯)가 平理院 審理에서 供述한 내용과 判決내용 등을 풀이하여 옮겨 놓은 것이며, ④는 당시 제주도에 유배되었다가 民亂을 直接 체험하고 기록한 金允植의 『續陰晴史』를 중심으로 민란의 발생과 천주교 박해, 捧稅官의 폐, 教弊, 유배인의 동향, 일본 어민의 동향 등 5개 항목으로 나누어 考察하면서, 結論에서는 1901년의 제주도 辛丑 民亂은 그 規模에 있어서 舉島的일 뿐 아니라 수백명의 천주교도가 학살되는 유례없는 民亂이었고 주모자들의 처형과 사후 문제가 完全, 해결되기까지는 3년의 세월이 흘렀으며, 과거 수차의 大迫害 사건이 官에 의하여 천주교 자체에 대한 금압에서 빚어진 教難이었다고 하면, 天主教가 목인 狀態에 있던 당시의 辛丑迫害 사건은 어느 특정인이 作弊하여 민중의 원한을 산 것이 드디어는 천주교 전체가 피해를 입는 데까지 비약을 하고 있다. 亂民들은 천주교도들을 학살하면서도 교도들의 작폐를 말하고 있지 천주교를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本民亂이 李朝末期의 三大教難과는 구별되지 않으면 안될 성질이 있는 것이며, 이 民亂이 謫客 수명이 천주교측에 가담하여 사태를 더욱 혼미하게 만들고, 제주도에 대거 진출하여 어장을 독점하고 있던 일본 어민들이 亂民을 積極 성원, 원조하여 더욱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였다. ⑤는 제주도의 천

주요 전래와 신축년 당시의 본도의 사정(행정, 세제, 민간신앙) 및 사건의 경위를 기술하였고 ⑥에서는 사건의 처리과정에 있어서의 외교문제 즉 법관구성 문제, 배상금 상환문제, 매장지문제 등을 주로 考察하였다. ⑦은 李在守實記(中島文華堂, 大阪, 1931)와 당시 亂에 直接 參加했다는 양달관(당시 20세)의 말을 종합, 재편하여 소설화한 것이다.

또한 開國 이후 日本 漁民의 제주도 近海 침투와 그로 인해 야기된 제반문제에 대해 論述한 논고들이 있다.

①玄季順의 「韓末 韓日漁採問題의 一研究: 濟州漁採問題를 中心으로」(『서울대학교碩士論文集』, 1964), ②李元淳의 「韓末 濟州島通漁問題 一攷」(『歷史教育』 10, 1967), ③權錫奉의 「李善得의 派日과 淸側介入: 特別 濟州漁採永罷交涉을 中心으로」(『白山學報』 8, 1970), ④韓祐勳의 「開港後 日本漁民의 浸透: 1860 - 1894」(『東洋學』 1, 1971) 등이 그것이다.

①은 韓日間의 漁採 문제가 주로 제주도를 중심으로 하여 야기되고 진행되었음에 착안하여 1876년 開港으로부터 1892년 李善得의 派日交涉經緯까지 범위를 설정하여 兩國의 交涉 경위를 밝히는데 중점을 두었다. 즉 日本은 1883년에 체결된 이른바 「通商章程」의 第41款과 「漁犯條規」를 합법적인 근거로 이용하여 어업구역의 擴大를 시도하고 심지어 어업이외의 여러가지 불법행위까지 야기시켰고, 특히 주목되는 것은 제주도의 漁採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간에 분쟁이 더욱 擴大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朝鮮側은 辦務使로 李善得을 派日하여 문제의 「通商章程」 개정안을 제기하여 제주도 海禁 문제를 타개하려 했으나 1890년대에 들어와서 列國의 간섭이 지배적이 되었고 또한 日本의 팽창정책에 의하여 濟州海禁을 비롯한 漁採 문제는 타결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②는 濟州通漁問題의 변천을 平面的으로 考察하는데 目的을 두고서 日本 漁採者의 제주진출, 제주도通漁展延문제 및 제주통어永罷운동의 순으로 所論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結論에서 “日本 漁撈人들이 가장 눈독을 들인 지역은 天惠의 水産資源을 가진 濟州地域이었다. 魚類·藻類와 더불어 豊富한 진북·미역 자원을 노려 제주해역으로 침투해 왔으며, 그 중심세력이 潛水器 漁業者들이었다. 고도의 收益性을 가진 潛水器 漁業者들의 濫獲에 의한 자원의 감소, 半漁半賊의인 폭행어로의 자행, 불법적인 密漁 작업의 성황으로 타격을 받은 제주도

민들의 生業死守를 위한 자위활동은 마침내 우리 정부의 濟州島通漁展延交渉을 促進하였고 나아가 濟州島通漁永罷運動으로 발전하였다. 濟州島民들의 日本漁撈者의 배척운동이나 우리 정부 관료들에 대한 作鬧騷動을 島民性의 頑迷·保守에만 돌리거나 풍속생활의 차이에서 오는 혐오증의 결과라고 봄은 너무나 피상적인 觀察이다. 그것은 생업의 위협을 피부적으로 통감하게 된 제주도민들의 자위활동이며 생존투쟁이었고 민족의 자원을 사수하려는 민족운동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 1885년의 濟州島通漁의 금지 約定 이후 수차에 걸쳐 제주도 통어의 海禁期限이 展延되어 약정상으로는 제주해역에서의 日本人 漁撈가 금지되었으나 利慾에 情을 잃은 通漁業者들의 漁探活動은 끊이지 않았으며, 포악한 살상·약탈사건이 거듭되었다. 불법적 어로는 우리 정부의 일관성 잃은 對策과 일부 관료의 符同腐敗로 철저히 못한 防遏策에도 그 원인이 있었다. 密漁 금지에서 通漁暫延으로, 海禁展延에서 永久停罷의 제주도 통어문제초점의 변천은 우리 정부 當路者들의 自律的 결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의 피를 보는 극한적 투쟁과 반대운동이 일부 先覺者 정객들에 반영되어 취해진 외교정책의 變轉이었다. 문제는 永罷를 위한 章程 개정의 외교적 절충으로 진전되어 辦務使 李善得의 派日을 보았으나 淸國과의 침투 각축에 意慾이 고조되었던 日本은 정치적 세력신장면에서는 물론 산업 각분야에 걸친 경제력 침투에 분망하여 일시적이거나 후퇴를 원치 않았으므로 章程改定은 허사로 돌아갔던 것이라 하였다. ③은 條約改定과 濟州漁採永罷交渉을 위하여 內務協辦이었던 美國人 李善得(Charles W. Legendre)이 辦務使로 任命되어 日本에 건너가 交渉을 시작한 1891년 9월을 전후한 시기부터 그가 歸國하는 1892년 11월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주로 淸國側이 어떠한 立場에서 어떠한 政策으로 이 문제에 介入干涉하였는가를 考察하였다. 즉 李善得의 派日에 대하여 淸側에서 始終一貫하여 介入·干涉한 것은 우선 그에 대한 個人的인 偏見에 연유한 것이고 交渉過程에서 나타난 淸側 態度는 朝鮮政府에 대하여 宗主權의 강화를 誇示하고 日本勢力의 浸透를 積極的으로 阻止시키려는 데만 盡力하였다고 보았다. ④에서는 “朝鮮政府는 濟州島의 특수한 위치와 그 島民의 특수하고 유일한 생계(어업) 확보책을 위하여 제주 연안에서의 漁採를 제주도민외의 他道民에게는 禁制하여 왔으며 그 밖의 여러 면에 있어서도 제주도는 특수구역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

러므로 일본 어선이 1879년경 이래 제주연안으로 침투하는데 대해서는 생계의 위협을 받은 제주도민의 拒抗은 물론 조선정부로서도 이를 금제하려던 것이었다. 그러나 日本 정부는 제주 特使가 일본 어선의 漁探을 저지했다는 구실로 거액의 배상금을 조선정부에 강요함으로써 부당한 손해배상의 지급과 잠정적(기간적)인 제주어채권·漁稅면제 등의 利權을 차지하여 사실상 제주어채를 어디까지나 既得權과 같이 간주하려드는 동시에 새로 通商章程을 체결함으로써 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려 하였다. 이 같은 狀況에서 제주도민의 반발과 동요속에 치외법권을 방패삼을 일본어민의 행패는 날로 심하여 약탈·살상행위를 자행하여 조선정부의 일본어선 제주어채를 防禁하려는 態度로 더욱 硬化되었던 것이다. 일본어민의 전면적인 침투추세속에서 일본어민들의 제주어채는 조선정부의 海禁下에서도 계속되었다. 일본정부가 조선정부의 일본어선 제주어채 금지조치의 代償으로 광산채굴권 大同江口의 개항, 日本漁民의 曬魚場의 개설 등 다른 利權獲得을 피하는 한편, 실제 일본어민들은 제주도에 불법침입하여 어채·攘奪을 자행하는 위에 제주도민을 살상하기까지 하여 도민의 분노를 샀으며 그러한 살육행위는 거듭되기까지 하였으나 조선정부의 이에 대한 보상요구에는 영사재판권을 방패로 범인을 제대로 徵治하지도 않는 것이었다. 이 같은 사태가 이윽고 고종 28년(1891)에 제주도민으로 하여금 일본어선에 대한「永禁通漁」를 표방하고 巡審官에 대하여 항거하게 한 것이기도 했다. 이 같은 島民의 완강한 拒抗은 일시나마 일본어민의 제주어채를 어느 정도 단념케 했었고 조선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朝鮮海禁策을 고집할 수 있게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日本 어민의 제주 침투는 그 뒤로는 依然하였다”고 하였다.

教育史로 觀點을 옮겨보면 玄仁洪의 「本島教育의 歷史的背景에 대한 小考:李朝時代 以後를 中心으로」(『濟大學報』 8, 1966), 金宗業의 「朝鮮朝 濟州教育에 대한 論攷」(『濟州大學論文集』 9, 1977), 康錫奎의 「濟州郷土教育의 史的考察:近世 朝鮮時代를 中心으로」(『교육제주』 38, 1978) 등이 있다. 첫째 論考는 本道教育의 발달시기를 4단계로 구분하여 第一期를 古朝鮮으로부터 三國時代를 거쳐 高麗 멸망까지, 第二期는 李朝建國 이후부터 甲午更張 이전까지, 주로 三國時代로부터 中國의 영향을 많이 받은 시기이며, 第三期는 甲午更張 이후부터 8.15 해방까지 日本의 영향을 받은 시기, 第四期는 光復

이후 今日에 이르기까지 美國의 영향을 받아 자주적인 민주교육을 하는 시기로 나누고 특히 현재의 교육으로서의 제주의 교육 現況을 분석, 把握하고 있다. 둘째 論考는 朝鮮朝에 있어서 제주도 교육은 대체로 鄉校, 學堂, 書院, 書堂을 중심으로 中央에서 과견된 教授官·訓導 등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때로는 學德이 높은 지방 儒生 중에서 推舉하여 임할 때도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도의 교육은 일반적으로 인재 양성의 목적보다는 邊方지방 子弟의 교화가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고 특히 試取과정에서 武科에 급제자가 많은 것은 제주도가 변방으로서 국방상의 요충이고 倭와의 거리관계도 있어서 국토방위와 외적침입에 대비한 朝鮮朝 국방정책의 一環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셋째 論考는 朝鮮時代의 文化 教育의 기본 성격, 조선시대에 향토교육, 학문의 발달에 따른 민권신장과 教學에 힘 쓴 牧民官, 유적人士의 教學과 제주의 士林 등으로 나누어 記述하였다.

이 외에 地圖에 관한 것으로는 吳洪哲의 「耽羅地圖의 性格」(『제주도』 61, 1973), 權寧徹의 「耽羅巡歷圖에 대하여」(『제주도』 65, 1975)가 있다. 前者는 1972年 8月 경상북도 盈德郡에서 南熙喆氏에 의하여 발견된 것을 본도에서 인수하여 보존중인 것으로, 방위개념이나 표현양식에 있어서는 한국의 전통적인 지도의 완성판인 大東輿地圖보다 나후성을 보이고 있으나 내용면에서는 朝鮮社會(肅宗朝)의 지리적 사정을 把握할 수 있는 실증적 資料가 되므로 학술적 가치가 크다고 하였다. 後者는 瓶窩公 李衡祥이 壬午年 10晦日 부터 濟州營을 출발하여 東→南→西→北으로 11월 末日까지 一期間 제주도를 完全 일주하여 순력을 마치고 濟州營으로 다시 돌아온 這間의 諸般事를 28幅 畫面에 수록하고, 기타 평상시의 年例行事인 封進, 大臘 驅馬 風流 및 자신의 영광을 畫繪化한 拜恩 등을 13幅에 담아서 이룩하여 놓은 것이다.

또 韓國精神文化研究院에서 李衡祥의 『耽羅巡歷圖』와 『南宦博物誌』를 影印, 간행하였고(一潮閣, 1979) 이에 대한 解題와 번역이 同 影印本과 權寧徹의 『瓶窩 李衡祥 研究』(韓國研究院, 1978), 『耽羅星主遺事』에 각각 게재되어 있다. 또 제주대학부속민속박물관에서는 李衡祥 研究를 주제로 한 「제1회 제주학 학술회의」를 1974년에 가진 바 있다.

近代에 관한 것으로는 濟州新聞社의 「朝天만세운동과 김장환일가」(濟州新

聞, 1969. 2.28), 吳成贊의 「만세동산」(濟州新聞, 1970. 6.15), 「古塚되어가는 義士의 무덤」(濟州新聞, 1977. 2.28), 김원민의 「사진으로 보는 半世紀前의 제주」(濟南新聞, 1972. 9), 함원택의 「抗日순국한 신앙인 김봉호」(『교육제주』 15, 1977) 등이 있고, 또 金奉玉의 기미년 당시 조천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을 다룬 「기미년 독립운동과 제주도민의 운동」(『교육제주』 19, 1972), 舊韓末 제주도에서 있었던 抗日義兵運動과 己未年 朝天 獨立만세운동 및 同年 獨立軍資金 모금운동의 全貌를 밝히고 그들의 高貴한 殉國精神을 力說한 「榮光된 濟州人의 精神遺産」(『제주도』 67, 1975)이 있는가 하면 姜龍三의 「구국의 燄불: 光州學生獨立運動의 濟州出身 주요멤버」(濟南新聞, 1976. 1.19)가 連載되기도 하였다.

Ⅵ. 結 言

이상에서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70년대말까지 歷史·考古分野에서의 제주도 관계 諸般論著에 대해서 그 論著名 또는 그 內容을 간략하게 敘述하면서 그 研究傾向을 살펴 보았다.

그 간에 간행, 발표된 論著는 방대한 분량에 달하였으나 조사기간과 여건의 제약으로 누락된 바 많을 뿐더러, 그 내용을 소개할 수 없었음에 대해 양해를 바랄 뿐이다. 다만 先攻者들의 연구 성과를 현재의 狀況에서 向後의 연구자들에게 연구 方向의 제시, 연구 업적에 대한 概觀을 주기 위해서 노력했으며 또한 여기에 만족하고자 하는 것이다.

通史類 분야에서는 書誌學的 側面에서 많은 서적이 간행되어 향토사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특히 『濟州年鑑』이나 『濟州教育史』 등에 수록된 「年誌史」나 「研究論文目錄」은 이 방면 연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先史分野에 있어서는 최근에 발굴, 조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이에 따라 先史時代의 編年問題나 先住民의 모습도 점차 드러나리라 기대된다. 古代와 高麗分野는 研究가 저조했으며, 또 어느 한 主題에 置重되는 등 다양하지 못하였다. 資料의 빈곤 탓도 있겠지만 앞으로 留意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한다.

朝鮮時代に 있어서는 비교적 前時代보다 폭넓게 많은 論考가 발표되었다. 일반적인 것으로는 人物, 譯文, 표류에 관한 것이 많았고 정치에 관한 論考가 있는가 하면 철종조의 민란, 辛丑年 천주교 教難, 韓末 日本 어민의 제주도 근해 침투와 關聯된 論考들도 많았다.

끝으로 한두가지 부연하고자 하는 것은 산만하게 흩어져 있어 逸失되어 가고 있는 資料의 발굴과 그에 대한 影印 내지는 譯註 작업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될 때 향토사의 연구는 더욱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발표 論文에 可能한 한 典據 제시를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그럼으로써 後學들의 연구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발표된 논문을 수합, 집성 출판하는 일과 通史的인 濟州島史 定立이 시급함을 재강조하고 싶다.

〈通史類 研究論著〉

著書

- 康大元；『海女研究』，韓進文化社，1970，1973 改正版。
- 高炳五·朴用厚；『元大靜郡誌』，博文出版社，1968.3。
- 耽羅星主遺事編纂委員會；『耽羅星主遺事』，高氏宗親會總本部，1979.8。
- 金孟玉外 5 人；『納邑鄉史』，프린트관，1969.7。
- 金寶鉉；『朝天誌』，제일인쇄사，1975。
- 金廷彥；『郭支誌』，1951。
- 金宗根；『猊來誌』，대영인쇄사，1979。
- 金玉敏外 2 人；『濟州道誌』，濟州新聞社，1962.3。
 —————；『翰林邑誌』，博文出版社，1963。
- 南都泳；『韓國馬政史研究』，亞細亞文化社，1976。
- 淡水契；『增補 耽羅誌』，프린트관，1954。
- 文總濟州道支部；『濟州文化』，友生出版社，1975。
- 朴用厚；『濟州島誌』，白映社，1976。
 —— 『南濟州郡誌』，상조사，1978。
- 石宙明；『濟州島文獻集』，서울新聞社出版部，1949。
 ——；『濟州島資料集』，寶晉齋，1971。
- 梁弘植·吳太用；『濟州鄉土記』，프린트관，1958。
- 禹樂基；『濟州道』，韓國地理研究所，1965。
- 濟州年鑑社編；『濟州年鑑』，1969 年版，1976 年版，1977 年版，1980 年版。
- 濟州大學耽羅文化研究所；『耽羅精神探究세미나 發表要旨』，1979.10。
- 제주도교육연구원；『향토지』，제주도교육위원회，1972.10。
 —————；『濟州教育通史』，濟州道教育委員會，1974。
 —————；『耽羅文獻集』，濟州道教育委員會，1976。

- 제주도교육연구원; 『濟州教育史』, 濟州道教育委員會, 1979.
 —————; 『耽羅의 忠孝烈』, 濟州道教育委員會, 1979.
 濟州道; 『濟州道文化財 및 遺蹟綜合調查報告書』, 1973.12.
 韓東龜; 『濟州島』, 日本 國書刊行會, 1975.
 韓致文; 『耽羅實錄』, 한진문화사, 1973.7.

論文

- 康錫奎; 「濟州의 鄉土教育의 史的 考察: 朝鮮朝時代 이전의 鄉土教育」,
 『교육제주』 37, 제주도교육위원회, 1978.4.
 康龍炫; 「濟州文化와 그 研究方法」, 『제주도』 14, 제주도청, 1964.5.
 金文奎; 「西洋에 Quelpaert 로 알려진 濟州島」, 『제주시』 9, 제주시청,
 1968.11.
 金奉玉; 「濟州의 馬政」, 『교육제주』 28, 제주도교육위원회, 1975.1.
 ——; 「榮光된 濟州人의 精神遺産」, 『제주도』 67, 제주도청, 1975.12.
 ——; 「瀛洲誌」, 『濟南新聞』, 1976.2.26.
 ——; 「進取的 氣像·強靱한 主體性」, 『제주도』 75, 제주도청, 1979.8.
 金瑞燕; 「제주도 畜産의 史考」, 『제주도』 63, 제주도청, 1974.8.
 金榮敦; 『旌義고을』, 文化財管理局, 1973.
 金宗業; 「耽羅國의 紀年에 對한 考察」, 『제주대학 교양학부 논문집』, 1974.
 金宗業外 3人; 「濟州道の 傳統文化: 역사·종교·실화·민요」, 『濟大學報』
 16, 제주대학, 1975.
 金宗業; 「濟州島略史」, 『濟州年鑑』 1980年版, 濟州年鑑社.
 金榮洽; 「濟州島의 忠孝人物 瞥見」, 『교육제주』 35, 제주도교육위원회,
 1977.8.
 金泰能; 「耽羅鄉土史草稿」, 『濟州新聞』, 1959.12.4 ~ 1960.6.17.
 ——; 「濟州島와 外國과의 關係」, 『濟州新聞』, 1962.12.14 ~ 12.15.
 ——; 「古代濟州의 學問과 文化發展에 寄與한 濟州의 流謫人들」, 『濟州
 新聞』, 1964.1.1 ~ 3.30.

- 金泰能 ; 「耽羅의 呼稱에 對한 私考」, 『제주도』 13, 제주도청, 1964.4.
- ; 「濟州의 牛馬賊小考」, 『제주도』 14, 제주도청, 1964.6.
- ; 「濟州島內 諸城의 由來 : 築城動機와 諸城子의 面貌」, 『제주도』 15, 제주도청, 1964.7.
- ; 「濟州島史와 그 問題點」, 『濟州新聞』, 1964.8.7 ~ 8.13.
- ; 「濟州島史의 問題點」, 『제주도 민속』 2, 1964.8.
- ; 「濟州島史의 問題點」, 『濟州新聞』, 1964.8.25.
- ; 「濟州民의 流亡과 出陸禁止」, 『제주도』 27, 제주도청, 1966.10.
- ; 「琉球와 濟州와의 關係」, 『제주도』 33, 제주도청, 1968.4.
- ; 「영천악 주변의 사적과 예기소 유래」, 『남제주』 7, 남제주군청, 1969.4.
- ; 「濟州島略史」, 『濟州年鑑』 1969年版, 濟州年鑑社.
- ; 「耽羅의 漢文文化」, 『濟州新聞』, 1972.3.15.
- ; 「濟州島略史」, 『제주도』 65 ~ 71, 제주도청, 1975.4 ~ 1977.10.
- 南都泳 ; 「韓國牧場制度考」, 『東國史學』 11, 東國大學校 史學會, 1969.
- 농촌진흥청 시험장 편집실 ; 「古書에 依한 濟州柑橘의 史的 考察」, 『수원』 47, 농촌진흥청 시험장, 1972.
- 文亨玉 ; 「大靜郡誌 紹介」, 『남제주』 4, 남제주 군청, 1968.8.
- 朴用厚 ; 「濟州島의 城址 및 防衛施設」, 『제주도』 66, 제주도청, 1975.8.
- ; 「歷史上에서 본 濟州島의 防衛」, 『제주도』 2, 제주도청, 1962.5.
- ; 「南濟州郡史」, 『남제주』 33, 36, 남제주군청, 1976.6, 1979.12.
- 朴用厚譯·李膺鎬著 ; 「毛羅國書」, 『濟州年鑑』, 濟州年鑑社 1976.7.
- 宋錫範 ; 「本島歷史時代 遺蹟의 問題」, 『濟州新聞』, 1965.6.23.
- 梁相翊 ; 「The Foreign Influence on the Traditional Culture of Cheju Island」, 『濟州大學 論文集』 5, 1973.
- 梁淳秘 ; 「濟州의 固有文化의 滋養素 : 流配人이 일구어낸」, 『제주도』 75, 제주도청, 1979.8.
- 梁弘植 ; 「濟州人의 혈통에 對한 小考」, 『제주도』 3, 제주도청, 1962.
- 禹樂基 ; 「濟州道의 地理的 位置와 歷史」, 『제주도』 18, 제주도청, 1964.

- 李根；「濟州道文獻 編纂問題」, 『제주시』 5, 제주시청, 1967.10.
- 李誠桓；「蒙古族이 濟州佛敎에 끼친 영향」, 『濟州新聞』, 1978.
5.23, 5.24, 5.25.
- 濟州年鑑編輯室；「濟州道史」, 『濟州年鑑』 1977年版, 濟州年鑑社.
- 高應三；「判官 徐憐 紀念碑」, 『제주도』 54, 제주도청, 1972.5.
- 秦元日；「濟州島 野話 : 효자편」, 『제주도』 4, 제주도청, 1962.10.
- ；「濟州島 野話 : 열녀편」, 『제주도』 5, 제주도청, 1962.12.
- ；「濟州島 野話 : 牧使·判官篇」, 『제주도』 9, 제주도청, 1963.6.
- ；「濟州島 野話」, 『제주도』 16, 제주도청, 1964.9.
- ；「고대사찰과 아라리 관음사」, 『제주도』 39, 제주도청, 1969.7.
- ；「濟州島 名勝과 西津老星」, 『제주도』 43, 제주도청, 1970.3
- 秦元日·玄平孝·梁重海；「耽羅의 學藝·言語·宗敎의 研究」, 『濟州大學 論文集』 3, 1971.
- 崔常壽；「濟州島民의 安南표류」, 『제주시』 창간호, 제주시청, 1966.7.
- ；「琉球王者의 濟州島 漂着說」, 『제주도』 37, 제주도청, 1968.10.
- 韓昌榮；「제주시사 편찬사업」, 『제주시』 16, 제주시청, 1971.3.
- ；「제주도 관계 문헌의 고전들」, 『제주시』 20, 제주시청, 1972.8.
- ；「濟州島 文獻에 關한 書誌學的 管見」, 『교육제주』 23, 제주도 교육위원회, 1973.9.
- 玄容駿；「濟州島關係 文獻 編纂問題」, 『제주시』 22, 제주시청, 1972.12.
- ；「濟州島의 基層文化」, 『文化人類學』 7, 韓國文化人類學會, 1975.12.
- 洪淳晚；「濟州流謫 1 番地」, 『濟州新聞』, 1973.9.29 ~ 74.5.17.
- ；「碑」, 『濟州新聞』, 1978.3.15 ~ 1979.2.16.
- ；「濟州에 恨을 둔 流刑人들」, 『제주도』 76, 제주도청, 1979.12.
- ；「濟州州城考」, 『耽羅星主遺事』, 耽羅星主遺事刊行委員會, 1979.
- 洪貞杓；「馬政」, 『제주도』 1, 제주도청, 1962.2.
- ；「濟州市 古蹟要覽」, 『제주시』 창간호, 제주시청, 1966.6.
- ；「貨幣葉錢考」, 『濟州新聞』, 1969.12.27.

〈先史時代 研究論著〉

著書

金貞培；『韓國民族文化의 起源』，高麗大學校 出版部，1973.2.

論文

金元龍；「濟州島의 先史文化와 住民」，『耽羅』10，在京濟州道民會，1976.10.

金宗業；「濟州島의 上古史」，『濟大新報』，濟大新報社，1977.5.

金哲煥；「濟州道 支石墓調查報告」，『서울대 論文集(人文社會)』9,1959.12.

文基善；「濟州道 無文土器文化 研究」，『濟州大學 論文集』5，濟州大學，1973.

夫宗休；「韓國 新·舊石器 時代의 穴居遺蹟에 對하여：濟州道 빌레못굴·한들굴」，『교육제주』24，제주도교육위원회，1973.11.

——；「濟州島의 先住民에 대한 考察」，『濟州島民俗』2，濟州島民俗學會，1964.

宋錫範；「濟州島의 고인돌 小考」，『제주도』13，제주도청，1964.4.

——；「濟州島의 先史時代」，『제주도』14，제주도청，1964.5.

——；「濟州島의 돌멘 遡考」，『濟州島民俗』1，濟州島民俗學會，1964.

——；「제주도의 Dolmen A地區의 支石墓」，『研修』55，濟州道教育研究院，1966.

——；「濟州島의 考古學的 意義」，『제주도』18，제주도청，1964.12.

——；「고인돌의 문화재적 가치성」，『제주도』39，제주도청，1969.7.

——；「郭支貝塚에 대한 소고：곽지패총을 발견하고」，『교육제주』23，제주도 교육위원회，1973.9.

- 鄭永和；「濟州道 舊石器時代의 穴居地」, 『제주도』 60, 제주도청, 1973.
 ——；「舊石器時代 穴居遺跡에 대하여」, 『文化人類學』 6, 韓國文化人類學會, 1974.
 ——；「濟州島의 考古學的 調查：新發見 遺蹟을 中心으로」, 『韓國文化人類學』 9, 韓國文化人類學會, 1977.
 洪淳晚；「제주 原住民은 어디서 왔나」, 『濟州新聞』, 1975.3.11 ~ 3.12.

〈古代論著〉

論文

- 金奉玉；「耽羅 古代史에 대한 小考」, 『제주도』 63, 제주도청, 1974.8.
 金宗業；「耽羅의 上古史 論攷」, 『濟州大學 論文集』 10, 1979.2.
 金泰能；「州胡人에 對한 考察 (上)(下)」, 『濟州新聞』, 1964.8.15 ~ 8.16
 ——；「耽羅國의 獨自의 文化와 唐과의 關係」, 『제주시』 6, 제주시청, 1968.2.
 南都泳；「三國時代의 馬政」, 『東國史學』 7, 東國大 史學科, 1963.
 ——；「韓國牧畜發達上으로 본 三國時代의 馬政」, 『論文集』, 京畿工專, 1968.
 石宙明；「耽羅古史」, 『國學』 3, 國學大學, 1947.12.
 李丙燾；「三韓問題의 研究：附 州胡考」, 『韓國古代史研究』, 博英社, 1976.

〈高麗時代論著〉

論文

- 金仁濟；「김통정의 탐라도 입거시대」, 『북제주』 62, 북제주군청, 1969.7.
 金宗業；「國難과 三別抄」, 『濟大新報』, 濟大新報社, 1979.5.31.
 金榮洽；「蒙古勢力을 물리친 耽羅의 恩人 崔瑩」, 『교육제주』 35, 제주도 교육위원회, 1977.8.

- 金泰能 ; 「耽羅와 三別抄」, 『濟州新聞』, 1959.5.12 ~ 5.23.
- ; 「三別抄亂이 濟州島에 미친 影響」, 『濟州新聞』, 1959.6.13 ~ 6.26.
- ; 「蒙古의 耽羅支配와 崔瑩將軍의 牧胡討伐」, 『濟州新聞』, 1959.7.18 ~ 8.1.
- ; 「耽羅와 元의 牧養時代」, 『제주도』 18·19, 제주도청, 1964.12·1965.5.
- ; 「元順帝의 避難宮殿址와 伯伯太子의 墓」, 『제주도』 31, 제주도청, 1967.11.
- 김혁수 ; 「三別抄의 對蒙抗爭과 그 意義」, 『菊香』 2,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1977.
- 南都泳 ; 「高麗時代의 馬政」, 『趙明基博士華甲紀念 佛教史學論叢』, 趙明基博士華甲紀念會, 1965.
- 閔丙河 ; 「三別抄의 史乘과 高麗史兵志」, 『自由』, 自由社, 1978.6.
- 宋錫範 ; 「15 리 土城 쌓고 抗爭 : 金通精將軍」, 『제주도』 45, 제주도청, 1970.8.
- 梁相翊 ; 「濟州에 미친 蒙古의 영향」, 『濟大新報』, 濟大新報社, 1977.4.6, 5.2.
- 梁重海 ; 「耽羅의 佛教와 水精寺에 關한 研究」, 『濟大學報』 6, 1975.
- 月刊開發濟州社編 ; 「三別抄」, 『개발제주』, 月刊開發濟州社, 1977.6.
- 李承俊 ; 「이고장의 人物 : 高麗朝의 門下侍郎平章事 高兆基」, 『교육제주』 34, 제주도 교육위원회, 1977.6.
- ; 「삼별초의 항전과 제주도」, 『교육제주』 31, 제주도 교육위원회, 1976.6.
- 李龍範 ; 「對蒙抗爭と三別抄」, 『アジア公論』 3.3(3), 1974.1.
- 李浩一 ; 「三別抄와 缸坡頭城」, 『護國戰蹟地巡禮』 9, 1981.12.
- 自由社編纂室 ; 「抗蒙殉義의 昂揚과 史統」, 『自由』, 自由社, 1978.6.
- 全麟燦 ; 「三別抄의 對蒙抗爭에 對한 考察」, 『동아대 대학원 논문집』, 동아대 대학원, 1979.

- 洪淳晚；「三別抄의 抗爭」, 『제주도』 71, 제주도청, 1977.10.
 岡田英弘；「元の順帝と濟州島」, 『アジア文化研究論叢』 1, 國際基督教大學,
 1958.
 森克己；「日・宋交通と耽羅」, 『朝鮮學報』 21・22合輯, 朝鮮學會, 1961.

〈朝鮮時代 論著〉

著書

- 權寧徹；『瓶窩 李衡祥研究』, 韓國研究院, 1978.
 李丙燾譯・헨드릭하멜著；『蘭船濟州島難破記；附朝鮮國記』, 一潮閣, 1975.2.
 李衡祥；『耽羅巡歷圖・南宦博物誌』,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79.3.
 鄭炳昱譯・張漢喆著；『漂海錄』, 汎友社, 1979.

論文

- 康錫奎；「濟州의 鄉土教育의 史的考察：朝鮮時代를 中心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 1976.
 ——；「濟州의 鄉土教育의 史的考察：朝鮮朝 時代 이전의 鄉土教育」, 『교육제주』 37, 제주도교육위원회, 1978.4.
 ——；「濟州 鄉土教育의 史的考察：近世朝鮮時代를 中心으로」, 『교육제주』 38, 제주도교육위원회, 1978.8.
 高南俊；「三旌閭의 家門을 이룬 朴繼昆」, 『교육제주』 35, 제주도교육위원회, 1977.8.
 高應三譯・高得宗著；「禮儀를 일으키자：靈谷公의 典禮儀論」, 『교육제주』 34, 제주도교육위원회, 1977.6.
 高柄翊；「南方黑人的 濟州漂到」, 『東亞交涉史의 研究』, 서울大學校出版部, 1970.6.

- 교육제주편찬실 ; 「濟州餓死民을 위한 祭文」, 『교육제주』 30, 제주도교육위원회, 1975.12.
- 權錫奉 ; 「李善得의 派日과 淸側 介入 : 特히 濟州 漁採永罷交涉을 中心으로」, 『白山學報』 8, 白山學會, 1970.
- 權寧徹 ; 「耽羅巡歷圖에 대하여」, 『제주도』 65, 제주도청, 1975.4.
- ; 「李衡祥 著 『南宦博物誌』 解題」, 『제주도』 66, 제주도청, 1975.8.
- 金啓淵 ; 「金錫翼 著 『耽羅紀年』 譯」, 『제주시』 7~21, 제주시청, 1968.4 ~ 1972.11.
- 金大鉉 ; 「濟州鄉校의 文廟上에서 본 韓國의 人物考 (一), (二)」, 『濟州商高 研究論文集』 7·8, 제주상고, 1973·1975.
- 金東醒 ; 「어버이 供養에 一貫한 夫千謙」, 『교육제주』 35, 제주도교육위원회, 1977.8.
- 金柄夏 ; 「崔溥와 하멜의 漂流에서 본 社會相과 意識構造」, 『문화비평』 5-1, 1973.3.
- 金寶鉉 ; 「태산도 흔들었다 : 尤庵 宋時烈」, 『제주도』 45, 제주도청, 1970.8.
- 金世革 ; 「朝鮮時代 濟州島 守令任命政策」, 『교육제주』 37, 제주도교육위원회, 1978.4.
- 김순희 ; 「靈谷의 興學校論」, 『교육제주』 25, 제주도교육위원회, 1973.12.
- 金良善 ; 「仁·孝 兩朝 蘭人の 漂到와 韓·中·日國의 外交關係 : 耶蘇宗 問題를 中心으로」, 『鄉土서울』 30, 1967.8.
- 김원민 ; 「濟州鄉校」, 『제주시』 31, 제주시청, 1975.12.
- 金益洙 ; 「李朝末 政治亂流의 代辯考」, 『濟州新聞』, 1969.12.4~12.7.
- 金益洙譯·金允植著 ; 「續陰晴史」, 『제주도』 59·61·62, 제주도청, 1973.5·10 ~ 1974.4.
- 金益洙 ; 「崔海山の 濟州赴任 : 이조초 화약기술의 원조」, 『제주도』 52, 제주도청, 1971.12.

- 金仁濟 ; 「濟州의 辛丑年 天主教 教難」, 『제주도』 30, 제주도청, 1967.8.
 —— ; 「제주의 신축년 천주교 교란 : 외교면에서의 고찰」, 『제주도』 39
 제주도청, 1969.7.
- 金宗業 ; 「世宗大王의 治績 : 特히 濟州島에 關한 治績研究」, 『제주대학교
 양학부 논문집』 2, 1973.
 —— ; 「李朝 濟州牧民官 16人」, 『제주도』 65, 제주도청, 1975.4.
 —— ; 「李朝 世宗年間に 있어서의 濟州島」, 『濟大學報』 16, 1975.2.
 —— ; 「朝鮮朝 濟州島 教育에 對한 論攷」, 『濟州大學 論文集』 9, 1978.
 2.
- 金鎮鳳 ; 「哲宗朝의 濟州民亂에 대하여」, 『史學研究』 21, 韓國史學會, 1969.
 9.
- 金榮治 ; 「世宗大王 當時의 濟州島」, 『교육제주』 25, 제주도교육위원회,
 1973. 12.
 —— ; 「忠孝를 兼全한 遺腹子 李弼完」, 『교육제주』 35, 제주도교육위원
 회, 1977.8.
 —— ; 「都近川의 구슬인 孝婦 金玉」, 『교육제주』 35, 제주도교육위원
 회, 1977.8.
- 金榮治譯 ; 「判書井 志感」, 『교육제주』 38, 제주도교육위원회, 1978.8.
- 金泰能 ; 「聖教亂 : 濟州에서의 天主教布教와 李在守亂」, 『濟州新聞』, 1962.
 10.5 ~ 11.10.
 —— ; 「고구마傳來와 周邊」, 『濟州新聞』, 1964.4.28 ~ 5.5.
 —— ; 「明의 興起와 濟州와의 關係」, 『濟州新聞』, 1964.6.28 ~ 7.5.
 —— ; 「金萬德의 飢民救濟功績」, 『제주도』 16, 제주도청, 1964.9.
 —— ; 「濟州飢民과 同苦한 牧使 盧錠」, 『濟州新聞』, 1964.10.29 ~ 11.4.
 —— ; 「聖教亂事件과 三狀頭의 供述內容」, 『濟州新聞』, 1964.11.26 ~
 12.2.
 —— ; 「李健著 濟州風土記」, 『濟州新聞』, 1964.12.13 ~ 12.23.
 —— ; 「太宗과 世宗時代의 濟州」, 『제주도』 21, 제주도청, 1965.9.
 —— ; 「李光彬의 長崎島 漂流와 그 氣風」, 『제주시』 2, 제주시청,

- 1966.12.
- 金泰能 ; 「濟州土俗과 永川 李牧使의 治績」, 『제주도』 30, 제주도청, 1967.9.
- ; 「梁濟海亂과 濟州民의 自主企圖」, 『제주도』 34, 제주도청, 1968.7.
- ; 「日本漁民의 濟州侵透와 그 영향」, 『제주도』 35, 제주도청, 1968.9.
- ; 「川尾浦의 倭亂과 乙卯倭變」, 『제주도』 36, 제주도청, 1968.11.
- ; 「秋史 金正喜의 大靜謫居와 그 영향」, 『제주도』 37, 제주도청, 1968.12.
- ; 「旌義縣에 反淸漢商의 표착과 그들에 대한 아국의 조치」, 『남제주』 8, 남제주군청, 1969.6.
- ; 「和蘭船舶의 大靜縣 漂着」, 『제주도』 39, 제주도청, 1969.7.
- ; 「牧使 金餼의 治績과 三泉書堂」, 『제주도』 40, 제주도청, 1969.9.
- ; 「申命圭 二代의 大靜縣 謫居」, 『제주도』 42, 제주도청, 1969.12.
- ; 「庚戌년에 엮힌 濟州史話」, 『제주도』 43, 제주도청, 1970.3.
- ; 「崔溥의 漂海錄」, 『濟州新聞』, 1970.3.27~5.1, 6.5~7.9
- ; 「金非衣 일행의 琉球漂流와 見聞」, 『濟州新聞』, 1970.8.27~9.15
- ; 「이땅에 학문퍼신 明賢 : 冲庵 金淨先生」, 『제주도』 45, 제주도청, 1970.8.
- ; 「애국충의의 명신 : 桐溪 鄭蕓先生」, 『제주도』 45, 제주도청, 1970.8.
- ; 「和蘭國漂流人 “벨트브레” 의 行績」, 『제주도』 46, 제주도청, 1970.11.
- ; 「反淸漢人들의 濟州漂着」, 『濟州新聞』, 1970.11.26~12.8.
- ; 「남제주군내의 고적과 고적지」, 『남제주』 4, 남제주군청, 1970.12.
- ; 「海上事故로 본 淸國과 濟州」, 『濟州新聞』, 1971.1.7~1.12.
- ; 「金萬德의 生涯와 行績」, 『濟州新聞』, 1971.10.12~11.4.
- ; 「盧氏부인과 까치·가마귀와 安德溪谷의 任觀周 詩」, 『제주도』 52,

- 제주도청, 1971.12.
- 金泰能; 「沈來復 一黨의 謀逆事件」, 『제주도』 54, 제주도청, 1972.5.
- ; 「三浦倭奴의 橫行과 牧使 張琳의 濟州防禦施設」, 『濟州新聞』, 1972.5.10 ~ 5.15.
- ; 「哲宗時代의 濟州農民 暴動」, 『濟州新聞』, 1972.6.22.
- 金翰熙譯; 「冲庵의 都近川 水精寺 重修 勸文」, 『교육제주』 29, 제주도교육위원회, 1975.9.
- 金行玉譯; 「宋時烈 謫廬遺墟碑」, 『교육제주』 36, 제주도교육위원회, 1977.12.
- 金行玉譯·李元鎮著; 「耽羅志」, 『제주도』 46~59, 제주도청, 1970.11 ~ 1973.5.
- 金亨翊; 「正道를 몸소 實踐한 洪達漢」, 『교육제주』 35, 제주도교육위원회, 1977.8.
- 南都泳; 「李朝 初期 馬政考」, 『東國大大學院 碩士學位論文』, 東國大大學院, 1960.
- ; 「麗末鮮初 馬政上으로 본 對明關係」, 『東國史學』 6, 東國大 史學會, 1960.
- ; 「朝鮮時代의 地方馬政組織에 대한 小考」, 『史學研究』 18, 韓國史學會, 1964.9.
- ; 「朝鮮 牧子考」, 『東國史學』 8, 東國大學校 史學會, 1965.
- ; 「典牧司에 對하여」, 『歷史學報』 30, 歷史學會, 1966.4.
- ; 「朝鮮時代 濟州島牧場 : 韓國牧畜業研究의 一端」, 『韓國史研究』 4, 韓國史研究會, 1969.6.
- 文仁璟; 「媿父母를 잘 모신 孝婦 崔氏」, 『교육제주』 35, 제주도교육위원회, 1977.8.
- ; 「이웃을 잘 돌본 模範人 玄遠祥」, 『교육제주』 35, 제주도교육위원회, 1977.8.
- 朴用厚譯·金尙憲著; 「南槎錄」, 『교육제주』 19~21, 제주도교육위원회, 1972.8 ~ 1972.11.

- 梁淳秘 ; 「李健의 『濟州風土記』考」, 『韓國言語文學』16, 韓國言語文學會, 1978.12.
- ; 「金淨의 『濟州風土錄』考」, 『語文研究』23, 1979.9.
- 梁重海 ; 「李衡祥 牧使의 對佛政策」, 『濟州大學 論文集』7, 1976.5.
- ; 「耽羅佛敎와 水精寺에 관한 研究」, 『濟大學報』6, 1975.
- 梁弘植 ; 「西洋人의 東洋進出時代와 濟州島의 觸角」, 『신성』6, 신성여고, 1969.11.
- ; 「地理上 發見時代의 濟州島」, 『제주도』7, 제주도청, 1963.3.
- 吳成贊 ; 「李在守의 亂」, 『제주시』4-5, 제주시청, 1967.9.
- 吳宗植 ; 「輿地勝覽中の 濟州」, 『제주시』5, 제주시청, 1967.10.
- 吳洪哲 ; 「耽羅地圖의 性格」, 『제주도』61, 제주도청, 1973.10.
- 李承俊 ; 「舊左面地誌」, 『樞苑』2, 새화중학교, 1976.10.
- ; 「朝鮮朝 濟州牧民官의 立碑考」, 『교육제주』36, 제주도교육위원회, 1977.12.
- ; 「이고장의 人物 : 世宗朝 漢城判尹 靈谷 高得宗」, 『교육제주』37, 제주도교육위원회, 1978.4.
- 鄭炳昱 解題·張漢喆 著 ; 「漂海錄」, 『人文科學』6, 延大 文科大學, 1961.7.
- 秦元日 ; 「嘉樂泉 물은 흐른다 : 五賢의 行적」, 『제주도』45, 제주도청, 1970.8.
- ; 「중종 26년에 제주목사 : 규암 宋麟壽先生」, 『제주도』45, 제주도청, 1970.8.
- ; 「民主主義 씨앗 : 청음 金尙憲先生」, 『제주도』45, 제주도청, 1970.8.
- ; 「玄玄居士 朴泳孝 : 배우려는 者에 冊을」, 『제주도』46, 제주도청, 1970.11.
- ; 「大靜鄕校와 傳說」, 『제주도』58, 제주도청, 1973.3.
- 韓贊爽 ; 「愛農偉人列傳 : 金萬德篇」, 『농검월보』, 국립농산물검사소검우회, 1964.2.

- 咸元澤；「獨身으로 一貫한 孝子 高允文」, 『교육제주』35, 제주도교육위원회, 1977.8.
- 洪以燮；「鄭東愈의 晝永編에 보인 異國語에 就하여」, 『歷史學報』4, 歷史學會, 1953.
- 洪貞杓；「1700年代初의 보배 : 耽羅地圖 并序」, 『제주도』58·59, 제주도청, 1973.2·5.
- 洪貞杓譯·金淨著；「濟州風土記」, 『교육제주』28, 제주도교육위원회, 1975.1.
- 洪貞杓·金宗業·洪淳晚·金奉玉；「李朝 濟州 牧民官 16人」, 『제주도』65, 제주도청, 1975.4.
- 玄仁洪；「本道教育의 歷史的 背景에 對한 小考 : 李朝時代 以後를 中心으로」, 『濟大學報』8, 1966.

〈近代論著〉

著書

- 康文昊·文泰善；『濟州 宣教 70年史』, 大韓예수教長老會濟州老會, 1978.
- 夫萬根；『光復濟州 30年』, 文潮社, 1975.

論文

- 고창호；「개화기에 정열 쏟은 파란눈의 아저씨 : 구마실 신부」, 『제주도』53, 제주도청, 1972.3.
- 金奉玉；「기미년 독립운동과 제주도민의 운동」, 『교육제주』19, 제주도교육위원회, 1972.8.
- 柳洪烈；「濟州島에 있어서의 天主教 迫害 : 1901年의 教難」, 『이병도박사 회갑기념 논총』, 일조각, 1956.10.

- 朴廣成；「1901年 濟州島 民亂의 原因에 대하여」, 『인천교대 논문집』 2, 1967.4.
- 李元淳；「韓末 濟州島 通漁 問題 一考」, 『歷史教育』 10, 역사교육연구회, 1967.12.
- 韓祐旆；「開港後 日本 漁民의 侵透：1860～1894」, 『東洋學』 1, 단국대학교부설 동양학연구소, 1971.
- 咸元澤；「抗日殉國한 信仰人 趙鳳鎬」, 『교육제주』 35, 제주도교육위원회, 1977.8.
- 玄季順；「韓末 韓·日 漁採問題의 研究：濟州·漁採問題를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집』, 1964.